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0년 (불기 2563년) 12월 30일 (수)

<http://dongguk.or.kr>

제254호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길 위에 서있습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 19라는 무서운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국인은 서로 따뜻한 위로와 쟁겨주는 가족의식이 돋보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일모의 석양이 아쉽지만, 그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일, 안타까운 일상들을 털어버리고,

2021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동국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축복처럼 내리고,

저마다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충동창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 일출

박승종 (입학76 / 사진작가)

동국장학위원
참여 안내

동국장학위원 신청서를 충동창회 사무처로 보내주시거나, 거래은행에서 장학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3-886719 (예금주 재단법인동국장학회), 문의 : 02-733-3991, 02-733-0303

만해 한용운 · 청우 최재구 前 동창회장 흥상 제막

본회 임원 및 유족 30여명 참석 … 동국발전 초석 · 중흥 공로 기리다

만해 한용운 · 청우 최재구회장 흥상 제막식이 10월28일 오전 박대신 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 류주형 청우 최재구주모사업회 회장과 임원, 한용운 · 최재구 회장 유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명예의전당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대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만해 한용운 대선사는 102년전 우리 동창회를 출범시킨 초대회장으로서 독립운동가, 민족시인, 불교유신 등 민족사에 대한 공헌을 하신 자랑스러운 대선배로 존경받고 있다. 또한 청우 최재구 회장님은 7대부터 10대까지 회장을 맡으시어 대학 최초 송년의 밤, 동창회보 창간, 2백여개 지부지회 조직은 물론 협회관 건물을 종단으로부터 모교법인 재산으로 귀속시켰으며, 왕성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명목만의 동창회를 일하는 동창회로 중흥시키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도 동국



▲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상임부회장 및 감사, 유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상제막식이 열렸다.

의 위상을 빛내주셨다”고 회고했다.

청우 최재구 회장 유족대표인 장남 최대석(이화여대 부총장)씨는 “우리 가족들을 대신해서 동국대 동창회에 대해 거듭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아버

님이 살아계셨다면 91세인데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동국대 동창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만해 한용운스님 외손인 정재홍씨는 “외조부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님으로부

터 가끔씩 들었지만 동국대 동창회와의 인연은 잘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영광스럽다”고 인사했다.

제막식은 임선기 사무총장 사회로 행사에 앞서 총동창회 100년의 역사를 담은 동영상 시청, 새로운 역사창조 100년 비전 설명이 있는 다음 국민의례, 만해 한용운 · 청우 최재구회장 약력 및 공적 보고, 흥상 제막, 총동창회장 인사말, 한용운 · 최재구회장 등의 흥상 제작비 기부자 소개, 유족대표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흥상 현액은 2019년 제28대 동창회 1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한용운스님 흥상은 김오현 상임 부회장, 청우 최재구 회장 흥상은 청우최재구주모사업회에서 제작비를 각각 협찬했다.

80년대 학번 임원진 간담회

총동창회 집행부와 상호 소통 공감대 형성



▲ 80년대 학번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총동창회 현안업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80년대 학번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각 학번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16일 오후 6시30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간담회는 본 총동창회 임선기(경행79) 사무총장 주재로 현안 업무 소개 및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안업무로는 △동문조직 활성화 역량 강화 △동국장학위원회제도 운영 △동국인의 밤 개최 △모교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 참여 등이 설명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학번별 회장단을 중심으로 동창회 발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지난해 선포된 총동창회의 ‘새로운 100년 비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동창회 핵심역량의 중심세대로 50대 나이인 80년대 학번 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어떻게 역할 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총동창회는 이와 관련해 80년대 학번이 중심세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90년대 학번(40대)이 차세대 주

자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위주 찾아가는 동창회 활동,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국장학위원회는 매월 일정금액 이상씩 정기 기부하는 장학위원회를 확보하여 후배들의 면학정진을 장려하는 운동으로서 2023년까지 10억원, 2030년까지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방침으로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임을 확인했다.

또 올해 ‘동국인의 밤’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거르지 않고 12월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는 공지와 함께 행사의 컨셉이 동창회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의견을 수렴했다.

모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강당 좌석 기부 캠페인은 재학생 후배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기금 확보에 있는 만큼 모교 사랑, 후배사랑 측면에서 주변에 많이 권선할 것을 동의했다. 이 캠페인은 대학의 중심 공간인 중강당 좌석에 기부자별 이

총학생회장 등 학생간부 초청 격려

“장학 · 취업문제에 관심 가져달라” 건의 받아



▲ ‘동국화이팅’을 외치는 박대신 회장과 이제준 총학생회장(오른쪽 3번째) 등 학생간부들.

본회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11월18일 낮 재학생 대표인 이제준 제52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간부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동국발전을 위해 자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신 회장은 학생간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동창회와 학생회는 언제나 한 목소리로 동국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 역할이 계속 이어지고, 특히 학생간부들은 졸업과 동시에 회원이 되는 만큼 선배들의 전통을 일신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간담회는 총동창회 102년 홍보영상 시청과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 비전 및 액션플랜 설명이 있는 뒤 임선기 사무총장과 학생회 간부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간부들은 변화된 학생문화, 취업, 코로나 19로 빚어진 비대면 수업 등의 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동창회 차원에서는 취업과 장학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후배들의 든든한 베풀이 되어주셨으면 한다”고 견의했다.

이날 총동창회 방문자는 이제준 총학생회장, 김유린 부총학생회장, 김성식 총무국장, 최현우 사무국장, 강지산 대외협력국원, 김서윤 기획국원 등 6명이다.

동상회, 동국인의 밤 협찬금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기관 임원 모임인 동상회 홍영춘(불교61, 전 SK에너지, 사진 오른쪽) 회장과 김환배(전 GS칼텍스) 동문이 11월17일 본회를 방문, 박대신 총동창회장에게 ‘2020 동국인의 밤’ 행사에 써달라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동상회는 직능별 동창회로 산업자원통상부 전신인 상공부때 회원 50여명으로 결성하여 격월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2020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에 송석환 고문

부문별 수상자 – 경제 문선배, 사회 이은정, 문화예술 혜담스님, 공로 김환배, 단체 여자총동창회



▲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자 송석환 본회 고문.

총동창회(회장 박대신)는 올해를 빛낸 '2020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자로 송석환(농경64) 동진기업(주) 회장을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부문별 수상자는 문선배 신화건설 대표이사(경제), 이은정 경찰대학장(사회), 혜담스님 고려불화학술연구소 이사장(문화예술), 김환배 아인스홀딩스 회장(공로), 여자총동창회(우수단체)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행운의 열쇠)을 수여한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1,2월중 개최 예정인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송석환 고문은 교육인과 기업인으로서 각각의 목표를 모두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75년부터 친환경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사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국내에 5개 계열사와 미국 중국 카나다 등 해외법인 3곳을 두고 있다. 교육인으로는 2011년부터 자립형 사립 김천고(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을 맡아 명문으로 성장시켰다.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고,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로 있다. 집안 대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명문 가로도 유명하다. 증조부는 춘궁기에 식량을 풀어 마을 주민들을 구제했고, 조부는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 양성을 위한 김천고 설립과정에 거액의 사재를, 부친은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집안소유 농지 500여 둔을 소작인에게 무상 분배를, 송석환 고문은 김천고 재단과 동국대 등에 매년 수억씩 지원하며 가풍을 잇고 있다.

경제부문 문선배(경영) 동문은 1991년 창립이후 건축, 토목, 주택사업, 조경 등 각 사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래형 건설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13년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하였으며, 신화 하니엘을 브랜드로 꾸준히 아파트를 시공해 국민주택 보급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을 위해 동경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는 한편,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회부문 이은정(경행84) 동문은 여성으로는 두번째로 치안정감에 오른 경찰청 고위 간부로 중앙경찰학교 첫 여성 교장, 경찰대학 첫 여성 학장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경찰 내에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통하며, 업무 강도가 세어 남성 영역으로 분류되던 수사부서도 거쳤다. 1988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 마포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을 지냈고 미투 운동이 활발했을 당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재직하며 성범죄를 담당했다,

문화예술부문 월제 혜담스님(불대원01)은 출가 후 40여년을 고려불화의 복원과 보존, 전승에 힘써왔다. 201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千年, 고려의 혼을 깨우다' 전시에서는 5m 크기의 수월관세음보살도를 비롯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초청 전시 작품들과 11면 관음도, 양류관음도 등 스님의 대표작 60여점을 소개해 대호평을 받았다. 프랑스국립예술살롱전 명예훈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연예대상 명장부문,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고려 불화 장인상 등을 수상했다.

공로부문 김환배(연료공학68) 동문은 총동창회 사업 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후배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의 개발 및 홍보, 성과 달성을 위해 사재를 털어가면서 올인하였다. 현재까지 8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미래동창회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목표로 뛰고 있다. GS칼텍스 임원을 거쳐 현재는 (주)풍년 회장으로 있다.

우수단체상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는 여자 동문들의 급격한 증가에 발맞춰 여성의 섬세함과 친화성 등을 바탕으로 여성동국인의 미래지향적 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배 멘토들이 들려주는 꿈과 도전, 그 싱그러운 이야기' 콘서트와 함께 문화 행사, 바자회, 정기모임 등을 통해 동국인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다. 동국합창단에도 여성 동문들이 대거 참여하며 동문사회의 새로운 문화 창출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제 문선배 동문



사회 이은정 동문



문화예술 혜담스님



공로상 김환배 동문



여자동창회 김애주 회장

본회 상훈위원회 개최

2020 자랑스러운 동국인 선정을 위한 상훈위원회(위원장 김진억 상임부회장)가 11월30일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열려 본회 고문 송석환 동진기업 회장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 경제 문화예술 부문, 공로상, 최우수단체상 등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김진억 위원장은 인사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동창회가 의지를 갖고 매년 시행해온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중단없이 시상하기로 해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다"면서 "존경과 축하를 받을 수 있는 동문들을 겸종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회칙 제29조(포상)에 의거, 동국인 대상 및 경제, 사회, 문화예술, 학술부문과 공로상, 최우수단체상 대상자를 차례로 심의, 결정했다.

이 가운데 학술상 부문 수상자는 모교 재직동문 교수 및 동문 연구자를 기본자격으로 하는 등 피추천 자격을 논의,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피추천자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2배수로 하되 인문분야 1명, 이공분야 1명을 추천받아 상훈위원회에서 1명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학술상은 시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본회는 선정에 앞서 홈페이지와 각 단위동창회 공문을 통해 11월2일부터 11월19일까지 대상자 추천을 받았다.

대학축구 우승 '금일봉'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지난 8월 추계대학축구연맹전과 11월1일 대학축구연맹전 우승을 이끌어 동국의 위상을 빛낸 모교 축구부 안효연 감독(오른쪽)에게 11월5일 동창회 회의실에서 금일봉을 전달했다.

모교 축구부는 특히 11월3일 올 시즌 2관왕을 차지한 팀들끼리의 대결인 2020 대학축구 U리그 경기에서도 연세대에 4-1의 완승을 거둬 기염을 토했다.

박대신 회장은 안효연 감독을 접견한 자리에서 "모교 축구부의 연승 소식은 우리 동문들에게 오랜만에 안긴 큰 선물로 동국의 자부심을 키웠다"고 칭찬했다.

이 자리에서 안 감독은 박 회장에게 감독과 선수들의 싸인이 새겨진 우승기념 축구볼을 선물했다.

2021년 신년교례회

1월 넷째 주 개최예정

총동창회는 2021년도 신년교례회를 1월 4번째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년교례회에서는 신년 덕담과 함께 12월10일 개최 예정이었던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을 비롯해 시 낭송,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비전 액션 플랜 동영상 상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동국인의 봄' 행사를 열지 못한 점에 대해 동문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새해에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교례회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 02-733-0303 총동창회 사무처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코로나 여파 각종행사 취소 & 연기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신년회로 대신해

지난 2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총동창회는 물론 각 지부·지회의 모임이 연중 내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는 동문모임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나 코로나 2.5단계 격상에 막혀 ‘2020년 모임’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총동창회는 지난 11월초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동국인의 밤’ 행사를 12월 1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알렸으나 코로나 확산 추세로 부득이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등 ‘동국인의 밤’ 프로그램 일부를 신년교례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전주전북지부(회장 장세균)는 12월3일 송년회 개최계획을 세웠으나 정기 모임을 무기 연기했으며 대전충남세종시지부(회장 김종욱)는 12월8일 모임 계획을 1월19일로, 광주전남지부(회장 고천석)는 12월12일 모임 일정을 신년회로 미뤘다.

인천지부(회장 유기동), 대구경북지부(회장 손기범)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매년 신년회를 개최해 온 경주직활동창회(회장 조덕형)와 부산지부(회장 박진호), 춘천강원지부(회장 이덕수)도 지금으로서는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학과 및 대학원의 경우, 불교학부(회장 박순), 정치외교학과(회장 고용규) 경제학과(회장 우수환), 경영학과(회장 안영찬), 건축공학과(회장 김승욱), 불교대학원(회장 지율스님), 행정대학원(회장 법타스님) 경영전문대학원(회장 박태권), 언론정보대학원(회장 윤재민), 사회과학대학원(회장 김석만) 등도 관망 추세이다.

직능·친목모임인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 ROTC총동문회(회장 이인선), 7080회(회장 이계문), 동국동문합창단(회장 강석우) 역시 코로나 사태 진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춘천지부 조직활성화 간담회

총동창회 첫 방문 … 상호 소통 · 협력 다짐



▲ 박대신 회장이 춘천지부를 방문, 격려했다.

본회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11월4일 오후 춘천지부를 방문, 현지 임원들과 조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찾아가는 동창회를 중시해온 박대신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올해 1월 경주에서 각 지부·지회 임원회의를 개최한 이래 대면 행사를 자제해왔다”면서 “오늘 춘천지부 방문은 임원진만이라도 만나서 총동창회 활동 사항과 향후 계획들을 알리는 한편 현지 동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동국발전에 대한 의지를 모으자”고 인사했다.

이덕수(법학75, 한림대 교수) 춘천지부장은 “총동창회장의 춘천동창회 방문은 처음인 것 같다. 우리 춘천은 전체 회원 모임을 분기별로, 친목모임인 동우회는 매월 갖고 있다”며 “본부와 지역간 정보공유로 더 활기차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선기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새로운

100년 비전 창조’ 내용과 올해 주요 사업 계획, 동국장학위원회도 운영방안, 동국인의 밤 개최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 동문들은 점봉산 산채식당에서 만찬을 즐기며 동창회 활성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 및 학교법인 기여 등을 화제로 정답을 나눴다.

장소관계로 준비해 간 100주년 홍보영상은 상영하지 못했으며, 대신에 CD를 보내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춘천지부에서 이덕수 회장, 조한진(법학64, 前속 초경찰서장) 동우회장, 김경혜(행정66) 동우회 부회장, 유원표(통계75, 한양주류 대표) 前회장, 방춘식(체교76, 前남춘천여중 교사) 동우회 부회장, 이인찬(대학원98, 휴콘스 테크놀로지 대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총동창회는 박대신(국문69) 회장과 신관호(경제69) 회장특보, 임선기(경행79) 사무총장, 이상호(산업공학89) 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경주동창회 ‘동국은 하나다’ 공감대

동국장학위원 12명 가입 신청



경주캠퍼스 선센터 준공식 참석을 위해 11월12일 경주를 방문한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이날 저녁 시내 H식당에서 경주직활동창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과 경주캠퍼스 구별없이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다. 힘을 모아 미래 동국의 희망을 꽂 피우자”면서 동국인의 밤 행사, 동국장학위원 제도, 수의사업 추진 내용 등을 소개하고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주동창회 임원들은 ‘동국장학위원’ 참여 신청서를 작

성, 박 회장에게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간담회 자리에는 박대신 회장을 비롯 김환배 송일석 문선배 상임부회장, 이대원 전 경주캠퍼스 총장, 경주동창회 조덕형 회장과 공석돈 윤종원 박병훈 김종형 역대 회장, 배재우 사무총장, 최환호 김정현 박태환 백문규 등 집행부 국장, 길종구 모교 교수, 김영기 경주캠퍼스 총무처장, 대구경북동창회 이종호 사무총장,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 김희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하동극 위원장, 부위원장, 제육부장은 예비 동문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경남지부 장학기금 26명분 보내와



김희배 회장

경남지부동창회가 김희배(산공81) 회장을 비롯 회원 26명이 5만원씩 총 130만원을 장학금으로 보내왔다. 지부·지회가 장학금을 모아 보내

오기는 근래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김희배 회장은 “모교가 발전함으로써 동문들의 자부심도 커진다. 그 자부심은 동문들이 밀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십시일반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 가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민구(전자67) △김귀업(문화예술01) △김희배(산공81) △박영수(산공89) △박정석(산공84) △성일환(영문88) △박현정(수소08) △윤현철(농경85) △이동철(산공81) △조상훈(경영01) △강명진(법학95) △한인수(토목68) △황남진(경제85) △송문성(전자69) △강재웅(산공83) △권철현(한의80) △송부용(동경78) △윤창수(경행76) △이웅호(경제74) △박지영(행정96) △강재일(법학72) △윤재원(법학83) △김희준(한의96) △권철모(농학76) △이호중(행정85) △김경현(전자91)

‘동국인의 기(氣) 살리기 만남’



‘동국인의 기 살리기 만남’이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11월17일 광화문 S음식점에서 열렸다.

김종필(정외82, 내일신문 이사) 본회 상임부회장이 주선한 이날 모임에는 각 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80,

90년대 학번 중 동창회 활동에 열성적인 10여명이 참석해 동국발전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참석자는 △박성기(국문82) 동국동문합창단 총작장 △안영찬(경영85) 경영학과동창회장 △윤정식(역사교육86) 동국7080 사무총장 △한상권(경영89) 동공회 총무국장 △황범순(행정91) 고시동우회 사무총장 △주정호(회계92) 동금회 사무총장 △지정구(행정86) 한겨레신문 광고국장 △최철호(산공86) 성과길 연사문화연구소장 △김종필 동문 등이다.

경제학과 회장 이·취임식



▲ 송일호 전임 회장과 오수환 신임 회장(오른쪽)

경제학과동창회(회장 송일호)는 11월 20일 오후 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오수환(84학번, (주)평카라이언 대표이사) 동문을 선출하고 곧바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총회는 전임 회장 임기가 지난 3월 개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이날 10여명의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데 충무로4가 아리랑가든에서 열렸다.
오수환 신임 회장은 “선·후배간 우애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모교 및 총동창회와 보조를 맞춰 동국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학과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송일호(79학번, 모교 경제학과 교수) 전임 회장과 이형석(76학번) 동문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한편 새 집행부 감사에 문상미(84학번,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사무총장에는 임치성(88학번, (주)오케이시스템 대표이사)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의과대 김소형 회장 취임



한의과대학동창회 19대 김소형(83학번) 회장 취임, 18대 백기범(82학번) 회장 이임식 및 시상식이 10월13일 오후

7시 서울 쉐라톤 팔레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열렸다.

신·구 회장 이·취임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원 및 회원 30여명만 초청된 가운데 진행됐으며, 총동창회 박대신 회장과 윤성이 모교총장 등이 참석해 격려했다.

김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물적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 아이템을 개발하여 회원들의 업권과 번영을 추진하겠다”면서 “나가자, 동국한의!” “세계로, 동국한의!” “미래로, 동국한의!”라는 구호를 우렁차게 외치며 한의과대학동창회의 긍지를 일깨웠다.

이날 행사는 동창회 연혁보고 및 경과

보고, 회기 전달, 축하패 및 공로패 시상, 격려사, 축사, 건배제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했다.

■ 축하패 및 공로패 수상자 명단

△총장상 = 백기범 (전임 총동창회장)
△총동창회장상 = 남상민(명예회장 1기 40주년 행사개최) △한의과대학동창회장상 = 김동주(전 이사), 이승환(현 총무국장) △한의과대학장상 = 강민구(현 총무이사), 김정호(현 친교이사) △대한한의사협회장상 = 오정표(전 재무이사), 최유행(현 학술부회장, 골프 등산대회위원장) △서울시한의사회장상 = 백상열(전 총무이사), 조재용(전 기획이사), 배창욱(현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장상 = 최창록(전임 부회장) △대한여한의사회장상 = 노현민(현 재무이사) △경주시국회의원상 = 손광락, 김중오(전 경주시한의사회장) △경주시장상 = 양영이(전 경주시한의사회장)

동국84동기회, 왕궁숲길 탐방 행사



84학번동기회(회장 김정우, 회계학과)는 ‘동국84 행복공감 왕궁숲길 탐방행사’를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24일 구리시 동구릉 및 일대 둘레길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3개월여 공백끝에 갖는 행사로 제기차기, 보물찾기, 퀴즈 풀기와 트레킹 등을 통해 회원간 친목과 자부심을 공유했다.

자랑스러운 석림동문상 시상



회장 성우스님

석림동문회는 11월25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상록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회장에 성우스님(승가77,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재선출했다. 이어 자랑스런 석림동문인상 시상과 장학금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게 최소 인원만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1기 종비생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스님도 함께 했다.

석림동문회장 성우스님은 “전 이사장 자광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묘주스님, 전자불전 컨텐츠연구소장 진명스님 등

우리 동문들이 대학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며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마음을 모아 종단은 물론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석림동문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인상은 동곡학원 이사장이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인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과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에게 수여했다.

동국대 유아교육과 교수 대원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문인상을 수상했다. 또 서울캠퍼스 재학 중인 지우스님, 고경스님과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금현스님과 혜운스님에게는 각각 동문장학금을 지급했다.

112 ROTC 회장 윤재민 동문 선출



112 ROTC총동문회(회장 이인석)는 역대 회장 및 집행부 임원회의를 열어 제28대 회장에 23기 윤재민(사학81, 종합출판 범우사 대표이사)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윤 회장은 지난 1년간 현 집행부 수석 부회장과 ROTC 울트라 장학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11월18일 정오 서울 합정동 해담가 음식점에서 열린 회의에는 손학중(8기) 성영석(10기) 이영균(10기) 박대신(11기) 회장 등 역대 회장과 집행부 간부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재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法古創

新(옛 것을 익혀 새롭게 창출한다)과 敬人(남을 먼저 존경해야 나도 존경 받는다)을 마음속에 새기며 112 ROTC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회장은 또 “당면 과제는 조직활성화와 재정 안정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존의 임원회비제에다 일반 회원의 연회비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 집행부 사무총장에는 28기 백영춘(사학86)동문을 임명했다.

한편 ROTC총동문회는 이날 회의에 이어 12월2일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행사가 무기한 연기했다.

행정대학원 사무실 협판식



▲ 축하떡을 자르는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행정대학원 회장 법타스님 등 임원들.

행정대학원총동문회(회장 법타스님)는 12월4일 서울 창경궁로 21(예관동) 중구 청 4거리 소재 새 사무실에서 협판식을 가졌다. 협판식은 제24대 회장 법타스님, 박대신 총동창회장, 장하용 행정대학원장을 비롯 홍종표 행정대학원동문회 수석 부회장, 상임부회장 및 집행부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협판식에 이어 동문회기

제양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축하떡 자르기와 오찬을 함께하며 향후 동문회 발전방향 등에 논의했다.

행정대학원동문회 사무실은 20여년간 장충동에 소재했으나 2015년 활동 부진으로 철수하여 6년여 동안 공백상태에 있었다. 이번 사무실은 행정대학원 사무총장 채성만(13학번, 중구 육상연맹 회장)동문이 개인 사무실을 제공해 동문회 발전의 새 전기를 맞게 되었다.

‘동국경찰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인 중심 기숙형 학원 ... 장학금 조성 기대



▲ 박대신 회장과 서법권 동국경찰학원 대표(오른쪽)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총동창회는 경찰·해경·소방·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숙관리형 경찰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간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동국경찰학원 설립법인 GnM 에듀코리아 서법권 대표이는 11월3일 오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총동창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본회는 기숙사 입사희망자를 추천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모교 경찰행정학과 출신 동문들을 주축으로 개원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이고 있다. 동국경찰학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구은수(경찰행정78) 동문이 원장을, 송인모(경찰행정83) 동문이 부원장을 맡았으며, 이론과 실무에 강한 동문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모교 경찰행정학과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우리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겠다니 기대가 크다”면서 “동국인이 가는 길에 품위와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법권 동국경찰학원 대표는 “최고의 시설, 최상의 강사진,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개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양성의 요람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동국대 총동창회와의 협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소 : 충북 영동군 천태산 326
전화 : 043)742-9877,
010-3117-6182 (송인모 부원장)
www.policeacademy.co.kr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복지몰 회원가입 절차 _ 모바일, PC

[모바일 가입]

- 본인의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카메라 기능으로 아래 [QR코드 스캔](#) 또는 [URL 입력, 앱스토어\(애플\)](#) 다운로드로 복지를 앱설치

[안드로이드 사용자(삼성 폰 등)]



<http://asq.kr/hXC4QdOZBqDnD>

(필수)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앱파일 설치



앱 설치후 ‘신규회원’가입 클릭

① 이름, 입학년도 인증 후
회원가입

[애플 사용자(아이폰)]



[앱스토어 ‘베네카페’검색](#)



① 고객사 선택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선택

② 이름, 입학년도 인증 후
회원가입

[PC가입]

- dqua.benecafe.co.kr에서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이름, 입학년도 인증 후 회원가입



사업재정위원회 활동 이모저모

홍파스님 ‘차가버섯’ 즉석 구매



개하고 불교계 참여 등에 관해 자문을 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파스님은 “동국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회장단에게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즉석에서 동창회 수익사업중 하나인 차가버섯 10세트를 구매하고 격려했다.

사업재정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계속해서 본회 임원들을 계속 방문해 수익사업을 통한 장학기금 조성을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금속 한우삼 회장 방문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은 12월8일 본회 고문 한우삼(농학63) 태양금속 공업(주) 회장실을 방문, 사업재정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총동창회 근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한 고문은 “모교 발전과

동창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봉사해주시는 회장과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동국가족의 일원으로서 힘 달는데까지 역할하겠다”고 격려하면서 동창회 수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내 선물 구입 및 직원들의 온라인 등록 등을 담당 전무에게 당부했다.

태양금속공업은 1954년 설립해 자동차 및 기계, 전기, 전자부품용 냉간단조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6백여 임직원과 40여 협력사, 북미 인도 중국 등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협력업체와 후배 취업 알선 논의



이사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너두가 운영하고 있는 ‘동국가족 행복나눔’ 쇼핑몰에 동국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운용방안을 비롯 후배 취업 알선, 본회가 추천하는 명절 특판품 판매, 수익금의 장학금 편입비율, 본회 담당 전담직원 동문 채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개진했다. 이제너두는 국내 상위복지 쇼핑몰로 본회와는 지난 6월11일 업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업재정위원회 활동 실무진 위촉



▲ 김병국 본부장(왼쪽)과 서미용 실장(오른쪽)

각각 위촉했다.

신규 실무진들은 “동창회가 직접 수익사업을 통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 처음 도전인만큼 도전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가져오도록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실무진들은 수익사업체, 동문기업 등을 방문하여 동문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수익사업체 제품 판촉 활동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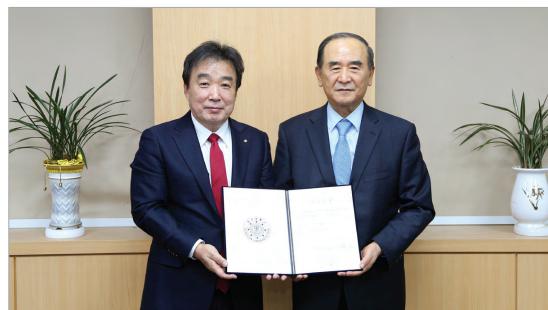
본회는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재정위원회(위원장 김환배) 업무를 담당할 실무진으로 온라인본부장에 김병국, 온라인실장에 서미용 씨를 12월2일자로

회계사 장학금 1억원



심현식 동문(상학59, 예원회계법인 이사) 동문이 10월14일 모교 윤성이 총장에게 후배 공인회계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심현식 동문의 뜻에 따라 ‘현인공인회계사육성기금’으로 명명되어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오래 전부터 사회 공헌의 뜻을 품어왔던 심 동문은 “모교의 우수한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성이 총장은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심현식 동문님 같은 선배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동문님의 뜻을 반들어 우수한 인재를 더욱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로터스관 건립 1억원



본회 송석환(농경64, 동진기업 회장) 고문이 모교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12월10일 윤성이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제25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1975년부터 동진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로터스관은 지하철 동대입구역 혜화문 근처에 신축예정인 건물로 도시의 랜드마크로 설계중이다. 송석환 고문은 지난 2014년에도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1억8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전달식에는 송 고문을 비롯해 박대신 총동창회장, 전영화 前 총동창회장, 김인수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김오현 총동창회 상임부회장과 윤성이 총장, 괴채기 교무부총장, 김관규 연구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로터스관 건립 1억원



본회 김진문(경영64, 신성약품 회장) 고문이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12월17일 모교 총장실에서 있는 전달식에는 신성약품(주) 김진문 회장, 윤성이 총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1985년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신성약품(주)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동국대 경영대학원 제18대 동창회장을 역임하는 등 동문 사회의 화합과 결집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4년부터 꾸준히 모교를 후원해왔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교지매입기금, 장학기금 등 총 15억원을 기부했다. 로터스관 건립기금 기부는 지난 2014년 1억원 기부에 이어 두 번째다.

여자총동창회 장학금 1천만원



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 “선배님들께서 주신 장학금을 통해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여자 총동창회 김애주 회장(영문76), 조충미 수석부회장(교육 81), 윤미정 부회장(교육81), 안영숙 사무총장(연극영화82), 사기순 홍보위원장(국문84), 이해림 홍보차장(국어교육85), 권영희 행사위원장(연극영화84), 김태현 장학위원장(불교84), 김미행 장학부위원장(영어영문85), 김보원 회원(전산85)이 여자총동창회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여자 총동창회(회장 김애주, 모교 교수)가 9월21일 윤성이 총장을 찾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여자총동창회는 기부금은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도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어 6명의 장학생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의학과 2기 발전기금 5천7백만원



80학번인 한의과대학 2기동기회가 11월22일 경주캠퍼스 한의학관에서 입학 4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5천7백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권칠현 동기회장은 “입학 40주년을 기념하고 후배들이 의술과 인술을 두루 겸비한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십시

일반 기금모금에 참여해준 우리 80학번 동기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의과대학은 1979년 1기생 입학을 시작으로 한의대 부속 경주한방병원, 분당한방병원, 일산 동국대 한방병원 등을 개원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다수의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3천만원



수회 회장은 “동문 및 교원들이 함께 모금한 기부금이 후배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주화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회 회장, 이상운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회 총무(한의

네팔 봉사단 장학금 2천만원



식품생명공학과 불교학 생회는 2017년부터 재학생과 동문들이 합심하여 네팔 대지진 구호활동에 동참해왔다. 2017년에는 네팔 포카라 비레탄티스 쿠에 방문해 염소 40마리를 기증하고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네팔 학생들을 한국에 초대하여

평택 심복사에서 한국음식체험을 함께 하기도 했다. 불교학생회는 최근에도 네팔 교육 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국내에서 교육 봉사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이다.

이황(식품공학72)동문이 네팔 자원봉사를 계획 중인 식품생명공학과 불교학 생회 학생들에게 지급해 달라며 10월19일 윤성이 총장에게 장학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한의과대학 총동창회 및 외래교수회의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12월2일(화) 총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3천만원으로, 한의학관 건립기금 및 한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주화(한의학81) 한의과대학 외래교

동창회 변화와 혁신 활동 ‘공감한다’ 97%

총동창회에서 지난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 비전 선포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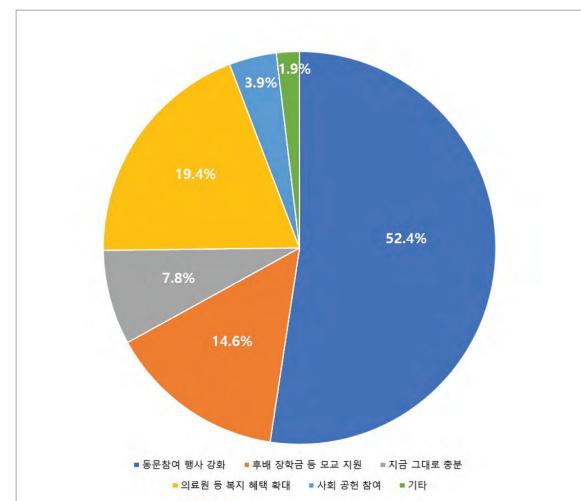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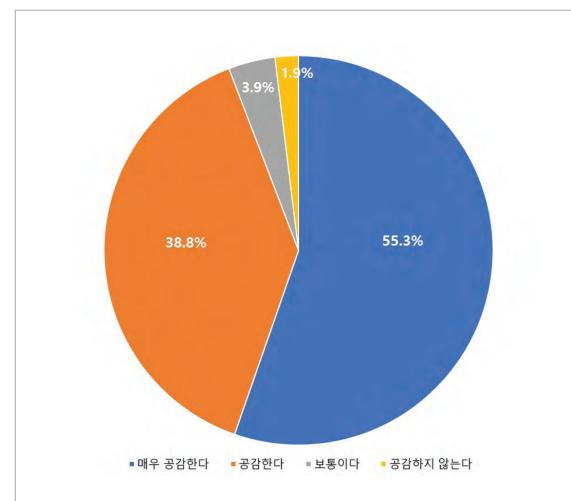
동창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97%가 ‘공감한다’는 아주 높은 비율의 동의가 나왔다.

한편으로 구체적 활동 내용이나 향후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동창회 활동의 큰 틀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동창회 활동방향 설문 조사

총동창회는 지난해 9월 박대신 회장 취임을 계기로 창립 10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 비전을 선포하였다. 새 비전으로는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을 목표로 ①동문화 활성화 역량 강화 ②안정적 재원확충 기반 조성 ③성장동력 촉진체계 혁신 ④모교와 파트너십 유지 ⑤건전한 조직문화 지속 창출 ⑥동창회관 건립 ⑦동국아너스클럽 운영 ⑧명예의 전당 설치 등의 우선 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앞서의 새 100년 비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에 대한 동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동창회 활동의 변화와 혁신 프레임을 설정, 활용하는데 큰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1천여명에게 문자, 카톡과 오프라인방식으로 설문지를 보내 300명이 답변서를 보내와 32%의 회수율을 보였다. 응답자는 고문, 부회장, 지도위원, 상임이사, 이사 및 회원 등 각 임원 및 회원들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학번대별로는 80년대 학번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70년대 28.1%, 60년대 19.3%, 50년대 5.1%, 90년대 3.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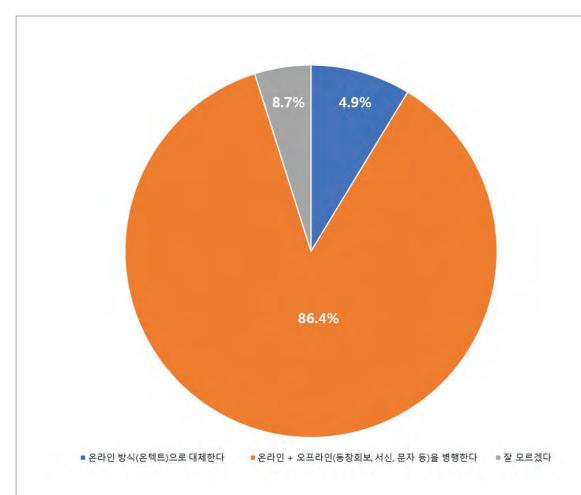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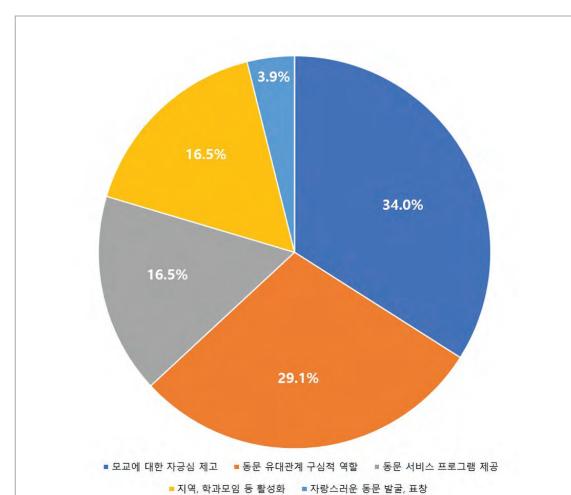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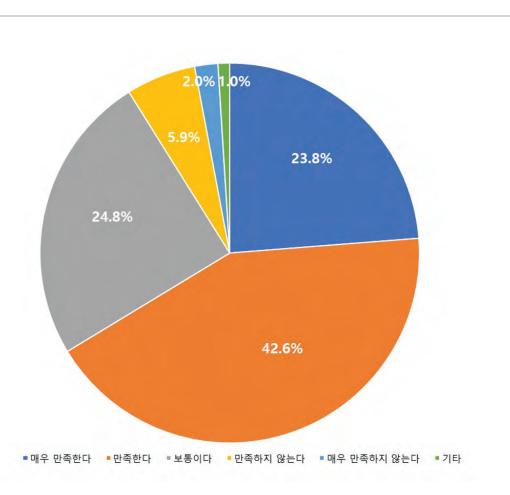


첫 질문으로 “총동창회는 새로운 100년 비전 선포를 계기로 ‘새로운 100년 비전’ 파워포인트 제작 및 홍보, 지역중심의 찾아가는 동창회, 동국장학위원회 제도,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 100년의 역사 홍보동영상 제작 등 동문들의 자긍심 제고와 소통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활동의 공감 정도는?”에 대해 물었다. 이 설문에 대해 매우 공감 57%, 공감 40%로 아주 높은 비율의 공감대를 보였다. 이는 새로운 100년 비전과 액션플랜이 동문들이 바라는 여망에 매우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는 보통 3.9%, 공감하지 않음 1.9%, 매우 공감하지 않음 0%로 소수에 불과했다.

두 번째는 “우리 총동창회는 회원간 친목 도모로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동창회 활동 중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분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4%가 ‘동문참여 행사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의료원 등 복지혜택 확대(19.4%), 후배 장학금 등 모교 지원(14.6%), 지금 그대로 충분(7.8%), 사회공헌 참여 3.9% 순이었다. 이 결과는 후배 장학금이나 사회 공헌보다는 동창회가 아직은 회원 권익과 내실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총동창회는 회원간 친목도모와 소통, 조직활성화를 위해 △동국인의밤 행사 △홈커밍데이 △동국가족체육대회 △동국인 골프대회 △동국가족 등산대회 같은 행사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에 대한 만족 정도는?”라는 항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만족한다 43%, 매우 만족한다 24% 등 3분의 2인 6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25%를 보여 대체적으로 큰 불만없이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만족하지 않는다 5.9%,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0%, 기타의견 1.0%는 소수 의견이 되었다.

네 번째는 “우리 총동창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활동은?”에서는 모교에 대한 자긍심 제고가 3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모교는 각종대학평가와 사회평판도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담긴것으로 보인다. 모교 발전이 동문들의 명예나 자존심과 밀접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어 동문 유대관계 구심적 역할 29.1%, 동문서비스 제공 16.5%, 지역 학과모임 등 활성화 16.5%, 자랑스러운 동문 발굴 표창 3.9%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과거와 비교하여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일반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창회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동창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이의 대응방안으로 향후 동창회 활동에 대한 소통 채널은?”를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이 8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방식(온택트) 대체는 8.7%로 별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4.9%가 나왔다. 동창회 구성 특성상 시대흐름에 따른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원하는 층이 아직도 두텁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여자총동창회 | 여학사회로 출범 → 여자총동창회로 개칭

60여년 동안 장학사업 이여가며 ‘동여총’ 자부심 키우다

“동국대학교여자총동창회(동여총)는 10여년 前 김영순 회장님께서 새롭게 정비하여 그동안 많은 여자동창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원들과의 돈독한 친목과 정신적인 연대를 도모하는 동여총은 후배 여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진출을 위해 세대간 연대를 공고히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동여총의 존재성은 바로 이러한 여성인재를 성장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여자동창들이 동여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동국대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여자동문들의 끈끈한 공동체로 자리잡길 바라며 저 역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동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간직하고, 동국이 가르쳐 준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동여총 김애주(영문76, 모교 교수 겸 대외협력처장) 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동여총의 역사는 거의 60여년이 되어 간다. 그러나 정체성을 확실히 부각시키고, 동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흡인력은 아직도 진행형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래서 동여총이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아 보인다. 희망적인 것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동문들간의 소통이 탄력을 받고 있고, 80년대 학번들의 중심세력화도 긍정적이다. 반면에 신세대 동문들의 개인주의 팽배는 넘어야 할 과제가 될 수 있다.

동여총은 그동안 남성 위주의 동문사회에 가려진 부분이 적지 않았다. 우선 환경부터가 달랐다. 선배 계층의 경우, 남녀 성비 비율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여자 동문들의 졸업생 수는 적었다고 할 것이다. 그 적은 동문들마저도 사회활동 공간이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한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최근 재학생 및 졸업생의 남녀 성비가 많이 개선되고, 사회 진출도 눈에 띠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동체 정신이 생활속에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최근들어 과거의 침체와 명복만의 동창회를 일하는 동창회, 함께 만드는 동창회, 보람을 찾는 동창회로 탈바꿈 시켜 나가고 있다.

동여총의 기원은 196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모교 여학생감이었던 윤을순(경제49)동문과 연구원 전영숙(국문65, 신흥대 명예교수)동문 등이 수소문으로 여자동문들을 발굴해 여학생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동여총 출범을 알렸다. 공식 명칭은 ‘동국대학교여학사회’였으며 동녀회로 통칭했다. 윤을순 동문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핵심 활동은 장학회를 조직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었다. 1972년 여학생감실이 학생회관 2층으로 입주하면서부터는 교양특강 및 꽃꽂이전시회를 열어 회원간 유대를 돋구고 했다. 전영숙 동문은 초창기 10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동문 활동이 제법 활기를 띠었다고 회고한다.

2대 회장에는 정임순(영문55, 당시 동덕여중 교사) 동문이 선출되어 여자동문대표로 총동창회 부회장 6명중 1인으로 참여했다. 뒤를 이어 1979년 4월 홍숙자(정치52)동문이 회장을 맡았다. 홍 동문은 국내 최초 여성외교관으로 뉴욕총영사관 부영사를 지냈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과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대한민국 현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후보로 활약했다. 1980년 9월에는 여학생들의 숙원사업인 여학생회관을 동녀회 후원회장 박계산(행원76)동문이 건축비를掏出, 학림관 옆에 마련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2층 총 110평 규모였다.



▲ 김영순 명예회장



▲ 김애주 현 회장

1981년 5월 새 회장으로 김정애(불교57, 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동문이 선출됐다. 1986년 1월 회장직을 인수한 안채란(국문48, 의정부 복지중고 교장)동문은 장학사업 활성화에 옮겼다.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뒤에 안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복지중고(현 영석고등학교)를 2011년 모교에 회사한 장본인이다. 이영자(불교61, 모교 명예교수)동문은 2대 여학생감으로 재임하며 홍숙자, 김정애, 안채란 등 3대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며 동여총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2001년 8월에는 김영란(법학52, 예진음악보습학원장)동문이, 2008년 5월에는 김영희(법학60, 민주평통 상임위원)동문이 각각 회장을 맡아 동여총의 맥을 이었다. 이 시기는 활동이 미미하여 동여총의 미래를 걱정하는 동문들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전면에 나서지 않아 위기를 맞는 듯 했다.

이즈음 총동창회 차원에서라도 동여총을 재건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가면서 모교에 재직하는 교수가 회장을 맡는 것이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들을 동문 교수사회에 직간접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몇 명 안되는 동문 여교수 중에서 “내가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 중에 고사를 거듭하던 김영순(화학65) 교수를 재선택해 승낙을 받았다. 2010년 9월27일 취임한 김영순 회장은 △회원발굴 확대 △자체기금 조성 △후배 취업알선 △전용 홈페이지, 카페 개설 △모교 방문 행사 등을 통해 동여총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천명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는 동여총 활성화에 힘이 되었다.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동여총 품속으로 들어와 세대 교체와 문화를 바꾸는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활기가 넘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모교 대외협력처장 보직을 맡고 있는 김애주 회장은 2016년 12월19일 회장직을 인계받아 바쁜 가운데서도 동여총을 위해 만 4년째 봉사하고 있다.

동여총은 57학번 김인순 선배부터 2000학번대 동문

들을 포함하는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으로서 여자동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베이스캠프이다. 장학금과 발전기금 모금, 문화행사, 멘토링 행사, 총회 및 송년회 행사는 동여총의 주요 활동들이다.

특히 여자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동여총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활동으로 훌륭한 여성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학생들과 졸업한 선배들이 만나는 멘토링 행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자선배들을 초청하여 사회 진출시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듣는 시간으로 인기를 모고 있다. 또한 동여총은 재학생 1:1 후원, 중강당 좌석기부 및 로터스관 건립 캠페인 등 모교 발전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교 로터스관 건립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동여총 사무실이 입주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고 있다.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통상적인 행사나 모임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였다. 아직 동여총에 참여하는 동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여총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직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여총은 각종 행사와 모임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모교와 총동창회에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교와 총동창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

동여총 현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고문 = 김영순(화학65, 모교 명예교수)
- △ 회장 = 김애주(영문76, 모교 대외협력처장)
- △ 감사 = 전은영(화학70)
- △ 수석부회장 = 조충미(교육81), 부회장 = 윤미정(수학 교육81)
- △ 수석국장 = 안영숙(연영82), 국장 = 윤혜경(인철82), 총무 = 조미옥(화학81)
- △ 장학위원 = 김태현(불교84), 김미행(영문85)
- △ 흥보위원 = 사기순(국문84), 이해림(국교85)
- △ 문화위원 = 권경하(연영84), 차연신(연영85)
- △ 세미나 = 김보원(전산85), 김순영(영문88), 박병옥(영문88)

〈취재 : 김미행 장학위원〉



▲ 송년회 행사.



▲ 꿈과 도전 그 싱그러운 삶의 이야기 토크쇼.



▲ 문화행사 ‘경복궁 나들이’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류정우 동문

“나라의 완전한 독립만이 자유를 보장한다”

사단법인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류정우(柳汀宇 · 58년 법학과) 동문은 80대로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이다. 서울의 한 복판 중구 삼일대로 363번지 장교빌딩 15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을 찾자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모습의 류 회장이 필자를 반갑게 맞이한다. 고령임에도 표현력이 정확하고 기억력이 또렷하다. 꽃꽂한 자세 또한 노인의 풍모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현업 일선에서 근무하는 자세 때문일 것이다.

서대문 감옥 현장에 동상 건립 추진

1등급 대한민국장 서훈 받아내

17세 나이 독립운동 정신 깊이 새겨야

국운 융성에 맞춰 일본 극복을

류정우 동문은 2017년 12월 1일 2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장이 된 것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고흥류씨 종친이란 이유가 크다. 류 회장은 8년간 고흥류씨 종양종친회장을 지내며 크고 작은 종친회 일을 보아왔다.

그동안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는 국방부 차관이자 원호처장(보훈처)을 지낸 류근창 동문(혜화전문), 곽정현 전 국회의원 등이 맡아왔다. 류근창·곽정현 전 회장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충청향우회장 출신이라는 인연으로 회장직을 맡았다면, 류정우 회장은 같은 고흥류씨 인연으로 맡게 되었으며, 종친이 회장이 된 것은 류 회장이 첫 케이스다. 그런데 유관순이라는 ‘유씨’와 류 회장의 ‘류씨’가 다르게 표기된 것은 버들柳자를 70년대 이후 ‘류씨’로 사용해왔기 때문.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는 성을 ‘류씨’로 사용하기 전의 명칭이어서 보훈처에 등록된 대로 사용하고 있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때보다 길다. 이 사업회는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7년 유관순 열사의 항일 구국 독립정신을 추앙하고 애국정신을 계승 선양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당시 조병옥 박사가 명예회장을 맡고, 서재필 이승만 김구 최현배 정인보 선생 등 민족 지도자들이 고문직을 맡았으며, 오천석 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시도지사가 위원직을 맡은 범국민 기구로 출범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유관순 열사의 구국항쟁 정신으로 결합시킨 동력으로 삼기 위해 거족적으로 기념사업을 벌인 것이다. 이때 유관순 열사 영화도 찍었다. 기념사업회는 이후 국가보훈처에 사단법인 단체로 등록됐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는 지금까지 각종 기념 건축물과 시설, 그리고 추모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국가상훈법에 김구, 이승만, 안창호, 안중근 등 30명이 포함된 건국훈장1등급 대한민국장과 신채호, 신돌석 등 93명이 들어간 2등급 대통령장과 비교해 823명 중 한 사람인 유관순열사가 3등급 독립장을 추서받아 류 회장이 취임하면서 1등급 대한민국장 서훈을 받아냈다. 이로써 1등급은 31명이 되었으며 국내 여성으로는 유관순 열사가 유일하다.



- 유관순 정신은 무엇입니까.

“만 17세의 나이로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유는 생명과 같다’고 한 말씀은 놀라운 사상 아닙니까. ‘나라의 완전한 독립만이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은 장자크 루소 이론과 같지요.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간판으로 올렸습니다만,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한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서대문 감옥 현장에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세우는 일을 내세운다. “3.1운동 때 체포되어 이듬해인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서대문 감옥 여자 8호 감방에서 순국한 만 18세 소녀의 항일 구국정신을 순국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순국 100주년인 올해 동상을 건립하려 했으나 제반 여건이 따르지 않고, 코로나 19까지 겹쳐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관순 열사 소재의 영화를 시공간과 국

경을 초월해 애국정신을 담는 영화로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유관순 기념회관을 짓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유관순 열사 동상을 북한에도 세울 계획이다. “북한은 3.1독립선언을 한 손병희 선생이나 임시 정부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고 있지 않지만 유관순 열사만은 우리와 똑같이 북한 고등중 교과서에 싣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은 유관순 열사의 순결한 독립투쟁 정신을 높이 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북한에 남북 공동으로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일부 교류 협력국에 건의한 뒤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금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가 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 공통적으로 이의없이 추앙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 몇 년 전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의 극우화가 극심해지고, 국내에서도 친일파들이 발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형무소 투옥 당시 독하기로 소문난 암사끼 일본의 간수부장(교도관)에게 고문을 당했고, 복부를 밟혀 방광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열사와 그 가족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이런 혐로를 갔겠습니까. ‘침략자가 어떻게 주인을 재판하려 하나’ ‘내가 내 땅을 찾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어린 소녀가 준엄하게 일제를 꾸짖는 것을 보고 생각 있는 백성이라면 각성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보다 못하면 안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국운이 융성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위치를 비굴하게 자학하며 살았지만, 행정처리 능력은 세계 최고이며 한반도 땅에서는 게르마늄이 많아 한국산 배추 마늘 고추 양파가 세계 최고의 식품 재료가 되어 코로나 19도 거뜬히 이겨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작은 울타리에 스스로 가두지 말고 대양과 대륙을 향해 웅비할 수 있는 기개를 펼쳐야 합니다”고 주문한다. 그래야 극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아산재단의 운영부장으로 재직 중 송파구 풍납동의 현대아산병원 건설을 총괄, 오늘의 전국 4대 메이저 병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동국대 58학번 동기 중에는 경제과의 김영구(전 민주 자유당 사무총장 및 원내총무), 정치과의 조국형, 김진철 동문 등이 있었다며 동창회가 동문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계홍 국문65 · 동창회보 홍보소통분과위원장〉

대학축구연맹전 2연승 이끈 모교 감독 안효연 동문

“선배님들이 경기장 찾아주면 더욱 힘이 날 것”

모교 축구팀이 올해 전국 축구연맹전에서 2연승을 해 기염을 토하고 있다. 모교 축구팀은 지난 8월 31일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학주계연맹전에서 승실태를 2대1로 꺾고 대회 우승했다. 이후 통영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춘계대회(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라온 승실태를 3대 2로 제압하고 또다시 우승했다. 모교 축구팀의 대학연맹전 우승은 30년만의 쾌거다. 그리고 모두 역전승한 것이 특징이다. 동국 축구의 저력을 과시한 셈이다.

벤취에서 “자신감 가져라”라고 주문

**수도권 · 지방팀 간에 실력차이 없어
정규 규격 운동장 만들어 주었으면
히딩크 감독 데뷔 경기서 첫골 주인공**

모교 축구팀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은 모교 체육교육과 97학번 출신 안효연 감독(43). 안 동문은 재학시절 공격수로 활약했다. 졸업 후에는 일본 프로축구 교토상가팀, 감바오사카 팀에서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뛰었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수원삼성 팀에서 뛰었다.

대학연맹전에서 모교 축구를 2연패로 끌어올린 안 동문을 인사동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안효연 동문의 훈출한 키와 잘생긴 얼굴이 눈에 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큰 키를 흔들며 들어서는 모습이 드라마틱해보인다. 키가 얼마나 높았더니 1m85cm라고 한다. 국가대표로 함께 뛰었던 이동국 선수와 비슷한 키라고 했다.

- 우승 소감부터 한마디 하신다면?

“두 대회 모두 역전승으로 우승을 거두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우리 선수들은 골을 내주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항상 주었습니다. 한골, 혹은 두골을 먹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런 당부가 선수들에게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선수단은 23명이다. 연고대는 30명 정도인데 동국대의 경우는 입학 TO 때문에 23명이다.

“부상 선수가 나오고, 컨디션 난조를 보인 선수도 있기 때문에 23명의 선수단은 숫자가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경기에서는 골키퍼가 필드를 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팀의 골키퍼가 골을 넣은 적도 있지요.”

그는 학교 사정도 있겠지만, 선수 TO를 늘려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동국대 들어오는 선수는 모두 에이스급이라고 자부한다. 타대학에 비해 경쟁률도 심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것.

-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 선수들을 훈련시킵니까?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쉽게 프로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기를 집중적으로 훈련 시킵니다. 대신 저는 자유분방을 내세웁니다. 경기 중 벤치에 앉아서도 지시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라운드를 해석해 풀어나가도록 하지요. 우수한 학생들이니 중요한 대목만 건드려 주면 됩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중인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주문하면 섞갈리죠. 또 그렇게 지시하면 서로 신경쓰이고, 호흡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다만 집중력을 기르도록 컨디션이 어떤가를 미리 살핍니다.”

안 동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다. 월드컵을 앞두고 해외 전지훈련에 나가서 대 잉글랜드 전에 이어 프랑스 대표팀과 경기를 할 때 부상을 당했다. 부득이 국가대표 팀에서 중도 하차했다.

“2001년 9월 히딩크 감독이 첫 부임해와 이집트에서 LG 4개국 국가대항전이 열렸습니다. 이때 제가 결승골을 뽑아내 이집트에게 1대0으로 이겨 대회 우승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맡아 첫 우승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그를 뽑시 아꼈다고 했다. 그런데 불운이 겹쳐 부상당한 바람에 박지성 김남일 설기현 등과 함께 뛰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 3연패 기록을 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지요. 교체 선수가 없으니 어렵지만 선

수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 욕심을 낼만합니다.”

전국의 대학 축구팀은 80개. 12월 연맹전은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 3위 이내에 드는 팀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다. 수도권은 모교 팀을 비롯해 승실태, 아주대 팀이 강하고, 지방은 울산대 전주대 호남대 대구대 영남대 팀이 세다. 이들 팀과 겨루게 되는데 정상을 한번 넘볼 생각을 다지고 있다.

- 요즘 대학 축구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고교 졸업생부터 실업팀에서 스카웃해가지요. 대학도 1,2학년때 프로팀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니 대학 팀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었습니다. 3,4학년만 되어도 진로에 불안감을 느끼니까 일찍 프로팀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정식 졸업할 때까지 무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운동장을 정규 규격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정규 규격이 안되다 보니 효창운동장으로 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규 규격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는 것이 아쉬워요. 그렇게 만들면 대학연맹전도 치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 학교 선전도 될텐데 말이에요.”

그는 부평초등학교 시절 형(안무연 ·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을 따라 축구를 시작했다. 축구 명문 부평고에서 주전으로 뛰었다.

아내 조경현(41)씨와 5년전 결혼해 지금 1남을 두고 있다. 조경현씨를 만난 에피소드가 있다. 수원삼성 팀 소속으로 있을 때 일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ACL)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사인받으려 온 아가씨가 있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사귀게 되었는데, 조씨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 끝으로 동문사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태백에서 경기할 때 강원도 지역 동문들이 대거 찾아와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힘이 솟습니다. 통영에서도 경남 지역 선배님들이 찾아주셨는데, 앞으로도 대회가 있을 때 찾아주셔서 격려의 말씀과 응원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응답하리라 약속합니다.”

〈이계홍 국문65 · 동창회보 흥보소통분과위원장〉

회보 100호 맞아 가로쓰기 · 컬러 · 증면 등 지면 쇄신

그동안 침체의 높에 빠져있던 동창회가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72년 최재구(국문48) 7대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였다. 최재구 회장은 당시 42세의 혈기가 왕성한 젊은 국회의원이었다. 동창회 살림을 보좌할 사무국장 역시 한참 일할 나이인 31세의 윤천영(농학59, 당시 31세)동문이 임명됐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7대 동창회가 가장 먼저 취한 일은 종로3가 로타리 고영빌딩에 있는 동창회 사무실을 모교 교수회관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그 이유는 임대료 등 재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일부 동문들의 사랑방처럼 비춰지는 부정적 시각때문에 동창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명분이었다.

총동창회 역사 (2)

모교 교수회관 1층 교수연구실 한칸을 확보해 사무실을 옮긴 동창회의 급선무는 동창회 활동을 새롭게 정립하고 동문들과 소통하며 동국공동체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이었다. 우선 동창회소식을 알리기 위해 모교 동대신문에 ‘동창회 소식’란을 신설했다. 이 소식란은 동창회 활동과 동문동정 등을 알려 동창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메신저가 되었다. 또한 과거 몇 번 지급하다가 중단된 후배장학사업이 다시 부활되어 1972년 1학기에 한호남(농학4년) 이병진(경제3) 전 응(행정2)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1973년부터는 1,2학기에 각 3명의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1973년 2월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은하 최재구 황명수 김동영 최형우 김진복 안종열 이범준 동문 등 동문 8명이 당선되면서 동국인의 자부심이 고조되고 동창회 활동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해에 법조인동문회, 한국언론인동문회 등이 출범했다.

현 혜화관 건물, 교육시설 귀속에 큰 역할

동창회가 이처럼 활발히 내실을 다져 가고 있을 때 모교는 중앙교육공무원 건물(현 혜화관) 귀속문제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1970년 당시 종단의 선각자 지도자들이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77억원으로 중앙공무원을 매입, 이를 동국학원에 귀속시키려 하였으나 일부 지도자들이 이에 반대하여 중앙교육공무원 건물(대지 1만2천여평, 6층)을 점거함으로써 학생, 교수들이 크게 동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동창회는 정기이사회를 소집(1973.4.28.)하여 모교 현안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재단과 종단, 학교측에 발송하고 그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무원장 재단이사장 종장과의 연석회의를 갖는 등 그 해결책에 노력하였다.

1974년 6월에는 회장단회의 결의로 모교의 난국타개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혁신자를 총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내어 관계기관(문교부, 문공부, 종무원장 감찰원장 종회의장, 동국학원 이사회 등)에 제출했다.

1975년 3월에는 모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의



▲ 7~10대 최재구 회장

▲ 11~16대 정재철 회장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종단=손경산 종무원장, 유월탄 종무부장 △재단=김갑수 이사장, 이광재 사무국장 △학교=이선근 총장, 조창화 총무처장 △동창회=윤천영 사무국장 △문교부=김상규 기획실장, 이대순 고등교육국장 등 9명으로 구성했으며, 성명서는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게재됐다.

제1회 동국인의 밤 개최

제1회 동국인의 밤 행사가 1972년 12월22일 무교동 호수그릴에서 열렸다. 대학동창회 사회에서 처음 있는 행사로 각계각층에서 동국을 빛낸 동문들에 대한 축하와 송구영신의 우의를 다지는 기회였다. 1974년부터는 회원발굴이 활기를 띠는 등 조직이 확대되면서 동국의 밤 행사를 규모가 큰 세종호텔로 옮겨 개최했다. 이어 1978년 동국인의 밤 행사부터는 참여 동문들이 크게 늘면서 앰배서더호텔과 롯데호텔 등에서 개최, 화합과 단결의 장을 연출했다.

1976년 5월 8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최재구동문을 제9대회장으로 재선출했으며, 회칙을 개정하여 회장 1인, 부회장 6인, 이사 1백 50인(상임이사 50인 포함), 감사 3인으로 하였다.

모교 개교70주년을 맞은 동창회는 그 기념사업으로 모교에서 창안한 장학기금조성운동에 적극 호응, 조찬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했다.

동국인명록 발간 · 동우회보 창간

[1976년]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만여 동문의 회원명부 ‘동국인명록’을 발간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소식지 ‘東友會報’를 창간하여 바야흐로 동창회 중흥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동국인명록’은 1965

년판 발행 이래 11년만에 제작(1976.5.8.)된 것으로 본회 임원과 각 지부 및 지회 조직현황 등을 실었다. 총 졸업생수는 24,448명이었으며 국내지역 24, 해외 4, 직장 17, 직능·친목 19, 대학·학과·동기 31개 등 지부·지회 단위조직은 95개 단위를 보였다. 회원 명부 명칭 ‘동국인명록’은 최세화(모교 교수) 송혁(동대신문사 주간) 윤천영 사무국장이 숙의, 확정했다.

‘東友會報’ 제호는 서예대가인 如初 김응현(문학49) 동문이 흔쾌히 보내주었으며, 모교에 재직중인 송혁 이황우 동문 등의 자문을 받아 윤천영 사무국장과 동대신문 편집부장 출신인 신관호 동문이 실무를 맡아 제작했다. 11월16일부터 12월까지는 모교와 함께 개교70주년 기념 전국순회 ‘민족과 민족문화’ 학술강연회를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춘천 인천 강릉 전주 광주 수원 등 10개 도시에서 열었다, 현지 교직 동문들을 중심으로 많은 고교생들과 동문들이 성황을 이루었다.

[1977년] 3월2일 개교70주년기념장학회 첫 장학금으로 7명에게 5만원씩 지급했다. 5월5일 종비생 모임인 석립동우회 창립총회(회장 유월탄)를 개최했다. 9월2일 동우회보 첫 편집위원 위촉 및 회의를 한국자동차보험 박은회 사장실에서 열어 편집방향 등을 논의했다.

[1978년] 6월17일 정기총회 겸 동국을 빛낸 동문 축하회를 모교 중강당에서 열어 제10대 회장에 최재구 회장을 다시 선출(4선)했다. 10월7일 모교에 경주분교가 교육부 인가를 받으면서 11월6일에는 경주동창회가 발기총회를 가졌으며 초대 회장으로 정준화 동문이 선출됐다. 12월12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동영 김상석 김은하 김제만 류한열 이상민 최재구 최형우 동문 등 8명이 당선되어 기염을 토했다.

[1979년] 3월2일 모교 재단 및 학교간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회 역할 등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5월11일과 10월18일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친 홈커밍데이 행사로 정기 이사회 겸 각급단위 동우회 임원연석회의를 모교에서 개최하였다.

개교70주년기념장학회 출범

[1980년] 1월29일 개교70주년기념 장학회가 첫 이사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기금은 4천만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40명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4월28일 동국산악회 한국마나슬루원정대 서동환 대원(공경3년)이 세계 8번째로 마나슬루 등정에 성공했다. 5월17일 한국마나슬루원정대 개선 카페레이드 및 귀국보고회가 있었다. 카페레이드는 1979년 12.12 신군부 쿠데타에 이은 비상계엄으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였지만 요로에 건의하여 김포공항-여의도-시청앞-광화문-동대문운동장-모교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펼쳐졌다. 다음날인 5월18일 광주사태와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있었던 엄중한 시기임에도 오픈카 7대, 경찰 백차 2대, 버스 4대, 예비 사이카 2대가 동원된 특별한 퍼레이드였다.

그 해 8월6일에는 이재웅(국문70)동문이 동아일보 창간 60주년기념사업인 국산 요트 파랑새호로 한국최초



▲ 동창회보 지령 100호.



▲ 11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1981년 4월 15일)

1992년 백상빌딩에 둉지 … 독자적 동창회관 건립 시급

태평양 횡단에 성공하는 낭보를 보내왔다. 9월30일 동녀회 후원회장인 박계산(행원77)동문이 건립비를 회사한 ‘계산여학생관’이 개관돼 여학생들 만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었다. 1981년 3월2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문 17명이 당선된 쾌거를 이뤘다. 고병현 이원범 김은하 맹은재 조병봉 이영준 정재철 이범준 황명수 임덕규 신순범 양창식 박익주 김영구 이영일 김유복 동문이 주인공들이며, 4월15일 모교 다향관에서 축하회를 가졌다.

정재철 회장, 조직 강화 · 재정 안정 도모

[1981년] 5월9일 모교 중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본회 11대 회장에 정재철 동문이 선출됐다. 10년여간 회장직을 맡아온 최재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부회장으로는 문태식 홍봉래 김성섭 문명린 김동정 류주형 이영준 맹은재 우국일 홍숙자, 감사에는 김관성 김정웅 이능희 동문이 선임됐다.

[1982년] 3월 동국개교70주년기념장학회 이사회는 장학금 지급액을 800만원으로 증액했다. 5월1일 정재철 회장은 신임 사무국장에 남기일 동문, 사무차장에 강진원 동문을 발령하는 등 사무처 기능 강화를 꾀했다. 10월5일 본회에서는 2,5,6대 회장과 2대 모교 총장, 15대 모교 재단이사장을 지낸 백성욱 박사탑비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대승사에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10월24일 제1회 동창회장은 배쟁탈 영남동문 친선체육대회가 경주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우승에 포항동문회, 준우승은 대구동문회가 차지했다.

[1983년] 2월7일 동국대학교동우장학회(재단법인동우장학회) 설립 정관을 제정하고 정재철 동창회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는 임원을 선출했다. △부이사장=홍봉래 김동정 △이사=문태식 김성섭 박준형 정상영 유근창 우순이 황경석 남기일 △감사=박충환 조희영. 총기금 7천 3백만원. 5월28일 제14차 정기총회에서 정재철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했으며, 동창회 재정 안정을 위해 부회장 숫자도 10명 내외에서 30명으로 늘렸다. 4월8일 회장단에서 모교 야구부의 춘계대학야구연맹전 우승축하연을 남서울호텔에서 가졌다. 9월2일에는 체육부에 야구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12월3일에는 학생취업추진위원회를 발족, 졸업예정자들의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섰다. 12월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국인의 밤에서는 ‘동국인명록’ 제5집이 7년만에 증보, 발행되어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었다.

募書 · 체육부 후원 · 취업지원 등 활발

[1984년] 5월8일에는 범동국인 모서(募書)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철 회장)가 발족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호응하여 1년뒤인 1985년 7월1일에 뉴욕지부(회장 임세창)에서 수집도서 4천권을 모교에 기증했다. 9월14일 박계산 동문이 건립비 3억원을 회사한 계산고 시학사(총건평 296평, 지상3층, 지하1층)가 개관되어 고시준비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11월1일 산임 사무국장에 신익현 동문이 부임했다.

[1985년] 2월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문 18명이 당선되었으며, 3월8일 당선 동문 축하회가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려 동국의 정치파워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당선동문은 최재구 정재철



▲ 동국인의 밤(1988년 12월)

[1986년] 7월11일 본회 사무국을 모교 학생회관에서 총무로 5가 대기빌딩 606호(현 제일병원 소아병동)로 옮겨 모교 울타리 밖으로 다시 시무국을 갖게 되었다. 이어 다음해 2월7일에는 사무국을 대기빌딩에서 종로구 관훈동 성화빌딩 12층(현 SK건설)으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제1회 ‘동국문화상’ 제정

[1986년] 12월19일 ‘동국인의 밤’에서는 동국문화상 제정 및 제1회 시상식을 갖고 동국을 빛낸 동문들에 대한 특별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건학이념부문 조명기 前모교총장 △학술부문 서정주 모교 교수 △예술부문 유현목 영화감독 등이다.

[1987년] 4월25일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에 정재철 회장이 4연임되었다. 8월1일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회원 검색, 주소 변경, 회비 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28일 모교 룸비니동산에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시비가 건립되었다. 10월28일 동국ROTC 총동문회 창립 총회(초대회장 1기 원용선)가 열렸고, 11월16일에는 동국라이온스클럽이 창립 총회(초대회장 정재철)를 마포 서교호텔에서 가졌다.

[1988년] 4월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자춘 권노갑 길길곤 김동영 김영구 김홍만 류한열 박지원 박태권 신순범 유기천 유인학 이긍규 이기빈 이찬구 정기영 최형우 황명수 등 동문 17명이 당선되어 여전히 강한 정치인맥을 이루며 “정치를 하려면 동국대로”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했다.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제24회 올림픽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김영남(레슬링) 김광선(권투)이 금메달을, 김태우(레슬링) 김상규(레슬링)가 동메달을 따내 국위 선양은 물론 동국인의 긍지를 드높혔다. 10월28일 서울올림픽 출전 동문선수 환영회에서는 이들 4명에게 제2회 동국문화상을 시상하고 위로했다.

[1989년] 3월16일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 제15대 회장에 정재철 회장이 선출(5연임)되었으며, 임원 숫자를 상무이사 100인 이내, 이사 500인 이내로 하는 회칙을 개정했다. 11월13일 모교 발전기금 1백억 원 참여를 위한 동국발전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2월1일엔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최치근 동문을 상임부회장으로, 노덕일 동문을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12월12일 제18회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제3회 동국문화대상에 한국불교전서 10권을 완간한 이지관 총장을 선정, 시상했다.

[1990년] 2월20일 동국인명록 제6집이 제작 배포됐다. 6월1일 장수정 동문이 사무국장으로 부임했다. 9월22일 교육대학원동문회 창립(회장 석성일), 12월5일 정보산업대학원동문회 창립(회장 박종일)을 각각 알렸다. 12월19일 동국인의 밤에서 제5회 동국문화대상에 △건학부문 故 권상로 모교 초대총장 △학술부문 故 양주동 모교 교수를 시상했다.

[1991년] 1월19일 모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재구 전 회장에게 명예문학박사, 정재철 현 회장에게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3월26일 지방자치제에 따른 구시군(기초의원)의회 의원 선거에서 동문 81명이 당선되었으며, 이어 6월20일 치러진 시도(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동문33명이 당선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군이 되었다. 6월11일 정기이사회에서 정재철 회장이 연임(6선)을 의결했다. 12월5일 경주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가 창립(회장 이두철)됐다. 12월19일 동국인의 밤에서 시상한 제5회 동국문화대상은 황수영 전 모교 총장에게 주어졌다.

[1992년] 3월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동문 18명이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강희찬 구자춘 권노갑 김영구 남평우 박규식 박근호 박제상 박희부 신순범 양창식 유인학 이긍규 이영창 정재철 최상용 최형우 황명수 동문이 주인공들이다.

5월2일 동창회 사무국으로 현재의 관훈동 백상빌딩 302호를 매입, 입주하였다. 그동안 동창회 사무국은 모교 → 서소문 한국빌딩 → 종로3가 고영빌딩 → 모교 교수회관 → 모교 학생회관 → 총무로5가 대기빌딩 → 관훈동 성화빌딩의 임대사무실을 거쳐 마침내 65평규모의 관훈동 백상빌딩으로 옮겨 안정적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후 독자적인 동창회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회장단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이다.

〈신관호 · 동창회보 편집주간〉

제2회 동국미래교육 포럼 ‘대학의 위기와 해법’ 주제로 개최

대학운영 핵심과제 “인재 · 지식 · 사회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모교(총장 윤성이, 사진)는 지난 9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동국미래교육포럼’을 출범시킨 가운데 12월15일(화) 14시 원흥관 3층 i.SPACE에서 두 번째 동국미래교육포럼을 진행했다.

‘대학의 위기와 대학 운영 혁신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연결사회에서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교육,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키우는 대학교육, 각자도생에서 동료 및 이웃과 협력, 소통, 배려하는 사회 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대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재, 지식, 사회 · 경제적 가치를 길러낼 수 있는 가치창출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대학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다.



학생발표에서는 ‘대학생이 원하는 미래 대학의 모습과 전망’을 주제로 학생모니터링단 신승제 학생(법학과)이 “4차 산업 혁명시대, 학력인구 감소로 대학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의 다변화, 전교적

졸업기준의 일원화 및 단순화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기조강연자를 포함해 조상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토론좌장), 이의수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석좌교수, 홍성조 동국대 공과대학장, 김애주 동국

대 대외협력처장이 참여해 기조강연자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제1회 ‘동국미래교육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9월11일 개최되었다. 기조연설을 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 19 등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어떻게 가르칠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자연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회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 인원(기조연설, 학생발표자, 토론자 등)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경영학과 장학금 30명에게 지급

경영대학 경영학과는 12월11월 2020학년도 2학기 경영학과 장학금(DBA Scholarship)을 전달했다.

올해 DBA Scholarship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56명의 학생(1학기 26명, 2학기 30명)에게 총 5,6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한 올해 말까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1차 합격자에게 전문자격증 취득지원금 총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동문들의 기부를 통해 조성

되었다.

안영찬(경영85) 경영학과동문회장(경영 85)은 “장학금 지급을 위한 면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사연에 경영학과 선배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전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가슴벅찬 경험이었다. 장학금지급이 실천 될수 있게 준비해 주신 경영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과 더불어 경영학과동문회는 향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행정학과장학금 수여식



경찰사법대학(학장 최응열)은 2020학년도 2학기장학금 수여식을 11월26일 혜화관 2층 고순정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총40명의 재학생에게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매학기 지급되는 경찰사법대학장학금은 경찰행정학부 졸업동문, 후원기업 및 독지가 등의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장학금 조성에는 △가이던스 △대성강

업 조권선 △법무법인 창조 김태현 실장 △에스원장학 △경찰사법대학원학생회 △경찰행정학과총동문회 △고시동우회 김수연 △교직원= 김광철 이건열 △동문= 김선두(21기) 22기장학 정연균(29기) 박희균(44기) 고순청 김재규 채문희 현승민 34기장학 강승철(39기) 최 철(37기) 이용호(41기) 유재권(43기) 임동희(31기) 등이 참여했다.

경영학부 4학년 전원 장학금 수여



동경장학회(이사장 문선배)는 11월26일 경주캠퍸스 원효관에서 경영학부 4학년 재학생 전원을 비롯한 학생 181명에게 총 618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 장학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경영학부 재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경영학부 4학년 재학생 171명 전원에게 30만원씩 총 5,130만원의 취업 성공 격려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평소 불심이 돋도하고 학교 생활에 성실한 경영학부와 경영대학원

재학생 10명에게 총 10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길종구 동경장학회 운영위원장(경영학부 교수)은 “동경장학회는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문선배 신화건설 회장이 1억원을 출연하고 10명의 장학위원, 다수 후원자의 동참으로 2억원으로 시작해 현재 5억 5천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지금까지 270여명의 경영학부 · 경영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89학번 장학금 2천만원 전달



89학번동창회(회장 이원호, 사회학, 변호사)는 9월 25일(금) 오후 서울캠퍸스 고순정세미나실에서 2020학년도 후배 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2019년 입학30주년기념 홈커밍

데이 이후 동창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89학번동창회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세우고 십시일반으로 총 2,240만원의 장학금을 모금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 28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89학번 동창회에서 이원호(회장, 사회학), 이판우(경제), 이원호(법학), 최윤모(법학), 허은연(법학) 동문이 참석했으며 학교에서는 김애주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4단계 BK21사업 5개 팀 선정

7년 간 약 100억원 수주

모교(총장 윤성이)는 교육부의 4단계 BK21사업에 총 5개 교육연구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BK21사업에는 ▲기계 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약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5개 학과 교육연구팀이 선정된 것으로 매년 14.5억원, 향후 7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4단계 BK21 사업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및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총 7년 (2020년 9월 1일 ~ 2027년 8월 31일)이다.

김관규 연구부총장은 "이번에 선정된 교육연구팀을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를 활성화시키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우리대학이 한층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축구연맹전 우승 '더블 위업'



모교 축구부가 11월 1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6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통영기)에서 우승컵을 높이 들었다. 결승전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김대욱의 결승골에 힘입어 승실태에 3대2로 역전 승했다.

지난 8월 강원 태백에서 열린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에 연이은 낭보로 모교는 2020년 대학축구연맹전 '더블'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춘계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세 차례 미뤄진 끝에 10월에야 열렸다.

국가대표 출신 안효연(체교97) 감독은 "준결승전에서 부상자가 나와 이날 주전을 4명 바꿔야 했다. 그럼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준 덕에 우승 할 수 있었다"고 우승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안효연 감독은 통영기 감독상, 역전승의 발판을 놓은 어정원이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모교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신규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매년 5억 씩 3년간 총 15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다학제간 융합 지식·실무(현장) 역량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동국인의 꿈' 을 2021 달력에 담다

동국인의 꿈

2021학년도 달력은 '동국인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현재 이자 미래입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경주캠퍼스 선센터 준공식 개최

내년 봄 개원... 선과 명상문화 대중화 나서



▲ 현대적 명상공간인 경주캠퍼스 선센터가 준공되었다.

경주캠퍼스 선센터 준공식이 11월 12일 열렸다. 선센터는 경주캠퍼스가 보유한 교육 연구 역량과 지역 불교 역사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마음건강 교육과 참선, 명상 문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방안을 준비하여 내년 봄 개원할 예정이다.

선센터는 연면적 2천 500m², 761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3개의 선방을 갖춘 선수행동을 비롯하여 공양동과 부

속건물로 교내 사찰인 정각원과 온방골 연못을 마주한 곳에 조성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본회에서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 김환배 상임부회장, 송일석 상임부회장, 신관호 회장 특보가, 경주직활동창회에서는 조덕형 회장과 박병훈 전 회장, 백재욱 사무총장,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 김희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 최우수상

경주캠퍼스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학생들이 지난 10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에서 최우수상과 금상, 은상을 수상했다. 하반기 대한민국 단일요리대회 종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로 세계적 수준의 식품조리 및 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이다.

11월 17일 제주한라대컨벤션센터에서 막을 내린 '전국 대학생 제주 요리 공모전 SCOTY 2020'에서는 김종환(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3) 학생이 대상, 최충현(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4)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제37회 대홍기획 광고 공모전 대상

'3대 광고 공모전'이라고 불리는 제37회 대홍기획 광고 공모전에서 모교 광고 홍보학과 황윤선, 김효민, 조유진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광고 제안서 부분에서 「이런 생(生)은 처음이라!」는 광고 카페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홉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새로운 트렌드로 탄생할 것이

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삶(生)의 방식과 클라우드 생(生) 드래프트의 청량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카페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모교 재학생들은 작년 법무부 공모전 수상 등 여러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다.

학생들은 우리동국대학교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이러한 컨셉으로 모교 소통홍보팀에서는 '동국인의 꿈'을 주제로 2021학년도 달력을 제작했다.

1월 강정원(경영학과 20)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을 선도하겠다.

2월 권지현(정치행정학부 18)은 외교 공무원으로 국가 사회에 기여하겠다.

3월 이재우(경찰행정학부 17)은 '봉사하는 경찰'을 꿈꾼다.

4월 박혜원(식품생명공학과 20)은 식품 독성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겠다.

5월 이수진(전자전기공학부 17)은 반도체공정 엔지니어가 꿈이다.

6월 최재현(연극학부 19)은 행복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

7월 홍콩에서 온 첨몽립(영화영상학과 17)은 영화감독이 되겠다.

8월 이유선(경제학과 19)은 국제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

9월 오영석(철학과 17)은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10월 최지원(법학과 19)은 '선한 법 조인'이 꿈이다.

11월 노완태(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15)는 IT기획 전문가를 꿈꾼다.

12월 동국대의 인재상으로 성장하는 108리더스의 조장단이다.



포장기술의 새로운 변화

식품포장의 Global 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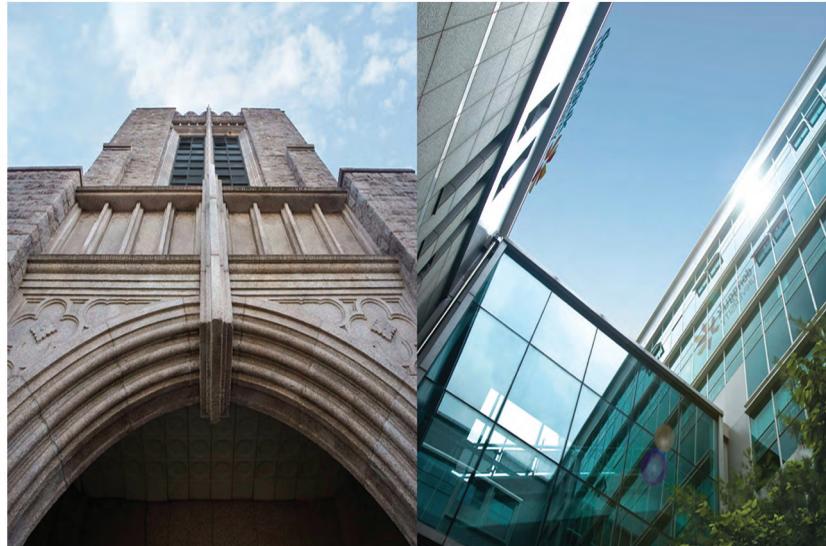
| 본 사 |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0, 유상빌딩 | Tel. 02) 2631-0066 | Fax. 02) 2672-1348



회장 이 수 복 (경영학과 197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6 (목내동) | Tel. 031) 491-3601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를 바라 보는 또 다른 세상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승인동) 전화 : (02)763-3109
홈페이지 : www.myogaksa.net

도심 속 고요한 휴식공간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변 사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곳, 현재에 존재함이 내 자신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도심 속 사찰 묘각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었다 가세요.

Where is your mind ?

- ▶ 1박2일 체험, 당일 체험
- ▶ 108배, 참선, 다도 & 스님과의 대화, 예불, 타종, 사찰안내



국내 첫 출판박물관 30주년 맞은 김종규(경제58)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다들 도자기 살때 古書 모아 … 국보 · 보물만 9점”

“일찌감치 출판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선언하고 닥치는 대로 사 모았지요. 팔만 대장경, 금속활자 같은 세계적 인쇄 · 출판 문화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 출판박물관 하나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책으로 걸어온 길’ 이란 포스터를 손으로 가리키며 김종규(81) 삼성출판박물관장이 말했다. 서울 구기동에 있는 삼성 출판박물관이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1990년 서울 당산동에서 우리나라 첫 출판박물관으로 개관해 2003년 이전 했다. 전적류, 근현대 도서, 고문서, 포스터, 출판 · 인쇄 도구 등 소장품 10만여 점.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남명 천화상송증도가’ 등 국보 · 보물만 9점이다.

고서적 수집을 시작한 건 형 김봉규(89) 삼성출판사 창업 회장의 영향이 컸다. 삼성출판사 부산지사장을 맡은 1965년부터 보수동 골목 한책방을 드나들며 희귀 고서를 수집했다. “6·25 때 피란 오면서 귀한 책을 쟁겨온 사람이 많았다”며 “당시 고미술 수집가들은 서화 · 도자기에만 관심 있지 책은 관심이 덜했다”고 했다. 좋은 고서가 나왔다는 연락이 오면 달려가고, 정년을 맞은 교수의 책들을 일



괄 인수하기도 하면서 컬렉션을 조금씩 늘려나갔다.

지금 한글 특별전 ‘그의 순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층에도 그의 수집품이 나와 있다. 한글 창제 직후인 1459년(세조 5년) 간행된 부처의 일대기 ‘월인석보’(권 23 · 보물 제745-8호). 불교 서적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책이다. 또 다른 ‘월인석보’ 한 점(권 22 · 보물 제745-7호)과 ‘석보상절’ ‘동몽훈’ 까지 넉 점을 선뜻 대여했다. 그는 “훈민정음 탄생의 순간을 담은 전시 공간에서 현대미술과 어우러져 묵향(墨

香)을 발산하는 우리 유물들을 보니 흐뭇했다”고 했다.

“박물관은 한 나라 문명의 척도”라는 게 평소 지론이다. “30년 끌고 오는 동안 애 힘든 게 없었겠나. 사립박물관 운영은 안목과 사명감, 재력 없이는 힘들다. 다행히 내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 행운”이라며 “이 세상 왔다가 한 가지는 하고 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문화계 대부(代父)’ ‘문화계 마당별’로 불린다. 팔순 넘은 지금도 한국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문화계 행사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으로 유명하다. 그는 “형 김봉규 회장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내 인생에 길을 내준 고마운 두 분”이라고 꼽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2000년대까지 박물관이 1000개는 돼야 한다”는 이 어령 장관의 말을 듣고 박물관 설립을 앞당겼다고 했다. ‘김봉규 · 종규’ 형제간 우애는 출판계에서 회자될 정도로 끈끈하다. 토종 캐릭터 애니메이션 ‘핑크퐁 아기상어 댄스’로 지난달 유튜브 조회 수 세계 1위에 오른 김민석 스마트스터디 대표가 김봉규 회장의 손자다. “지금도 고서 수집은 계속하고 있어요. 죽어야 끝이 나지요(웃음).”

개관 30주년 특별전 ‘책으로 걸어온 길’(29일까지)엔 그간 개최했던 특별전 전시품 중 대표작을 선별해 내놨다. 이인직의 ‘은세계’(1908),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 무용가 최승희의 ‘최승희 자서전’(1937), 여성 작가 최초의 신문 연재 장편소설인 박화성의 ‘백화’(1943) 등 희귀본을 다수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 발췌)

[명문 장수기업 탐방] ‘유엔아이’ 민홍기(경영74) 대표

“필기구 잉크 세계 1위 “이젠 폰 · TV용 1위 목표”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지만, 지금은 일본을 뛰어넘어 필기용 중성 잉크 시장에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도전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11월 24일 경기 시흥시 유엔아이 본사에서 만난 민홍기 대표는 “앞으로는 휴대폰 · TV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안료 부문에서도 국내 시장을 장악한 일본산을 대체해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아이는 민 대표의 부친인 민병일 대표가 1958년 서울 남대문에 설립한 공성염료가 전신이다. 당시엔 일본에서 섬유 날염(捺染)용 고급 안료를 수입 · 판매하는 도매업 위주의 작은 회사였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섬유 날염용 가공 안료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 기술력을 토대로 필기용 중성 잉크 개발에 성공,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명문(名門) 장수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1978년 아버지 회사에 취직한 민 대표는 1988년 서른두 살 때 선친의 유고(有故)로 가업(家業)을 물려받았다.

“처음엔 뭐든 다 잘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수입 · 판



매만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 대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날아갔다. 1993년 글로벌 화학 기업인 일본잉크화학공업(DIC)과 기술 제휴에 성공했다. 연구원과 생산 직원을 일본에 보내 기술을 배워왔고, 결국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섬유 날염용 가공 안료를 국내에서 생산?수출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섬유 산업은 쇠퇴기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매출도 급락했다.

민 대표는 과감한 업종 전환을 택했다.

그는 “적은 인원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방법을 고민하다 1997년 필기용 잉크 제품화에 도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잉크 개발 인력이나 경험, 기술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민 대표는 2002년 연구소를 세웠다. 전문 연구원도 고용해 연구 · 개발에 나섰다. 초기엔 잉크가 굳어버리거나 흘러버리고, 색이 변하거나 부패해 곰팡이가 피기도 했다. 수십 번 실험 끝에 결점을 극복할 수 있었고, 2002년 중성 잉크 개발에 성공했다. 2005년엔 0.4mm 미세 필기가 가능한 중성 잉크도 개발했다.

수성 잉크는 물에 번지기 쉽고, 유성 잉

크는 필기감이 뻑뻑하고 추우면 얼어붙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 중에 찌꺼기(일명 ‘볼펜똥’)가 많이 나온다. 수성과 유성 잉크의 단점을 모두 개선한 겔(Gel) 형태의 중성 잉크는 끊김이 없고 매끄럽게 쓰여 필기용 잉크의 ‘혁신’으로 불린다.

유엔아이는 중국 · 인도 · 베트남 등 세계 15국에 수출하고 있다. 2016년엔 ‘1000만불 수출 텁’을 수상했고, 2016년에 이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글로벌 강소 기업’에도 선정됐다. 지난해엔 2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수출 비율이 83%에 달한다. 직원 43명 중 11명이 연구원이다.

민 대표의 두 딸도 기업을 잇고 있다. 큰딸(37)은 기술 교류를 위해 일본 잉크화학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 · 개발만이 살길”이라며 “창업한 지 반세기가 넘었는데 앞으로 50년도 명문 장수 기업으로서 사회 ·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27일자 조선일보 발췌)

취 임 · 영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최승렬(경찰행정79), 보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동문이 제11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청장 임명 등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남택화(경행79)동문이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장으로 11월2일 부임했다. 1987년 경찰에 투신, 강원도 양구경찰서장과 경찰청 교통국장(치안감),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운전면허본부장은 공단의 운전면허 관리, 시험, 민원 부서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이다.

수소에너지기술연구조합 이사장



이욱태(불교80, 골든웰산업 대표이사)동문이 10월3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수소에너지기술연구조합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동 조합은 수소에너지 생산, 저장, 안전 이용 등의 수소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와 수소에너지산업 생태계기반 구축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용인시 제2부시장



정규수(건축광학81)동문이 경기 용인시 개방형 직위인 제2부시장으로 부임했다. 1991년 공채 7급으로 용인시에 몸 담은 후 행정타운 조성사업, 경전철 재구조화 및 재가동 등 굵직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전철 과장, 건축과장, 도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제2부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등의 부서를 관장한다.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박태선(농각82)동문이 12월11일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상호금융기획부 경영전략팀장을 역임했다. 2014년 농협은행으로 옮겨 남영동 지점장, 광주지역본부장, 전남지역

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작년부터 농협은행 HR·업무지원부문장 겸 신탁부문장을 맡아왔다.

한국경찰학회장 연임



이상훈(경행84, 대전대 교수)동문이 12월 18일 한국경찰학회 총회에서 학회장에 연임됐다. 올해 한국경찰학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정부 기관, 국책연구기관, 광역시의회 등과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태시 경제협력센터 경북대표



박병훈(일문83,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동문이 중국 연태시 주한국경제협력센터 경상북도 투자와 비즈니스 대표로 추대되었다.

한·중 양국의 상호 투자와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신뢰하는 플랫폼을 구축, 전문성있는 투자유치자문을 한다.

HDC현대EP 대표이사



정종규(기계공학95)동문이 10월5일 HDC 현대EP 대표이사 부사장에 취임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HDC현대EP는 최근 당진공장을 증축하고 인도 첸나이 2공장을 준공하는 등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에너지산업 분야 핵심 소재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세환(행정대학원 17)동문이 9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8년 10월부터 사무차장 직을 맡았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수상

자랑스러운 강원인 '동곡상'



전순표(농학53, (주) 세스코 회장)본회 고문이 11월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15회 동곡상을 수상했다. 동곡상은 7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동곡 김진만(1918~2006년) 선생이 자신의 아호를 따 1975년 직접 제정했으며,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주관하고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



심경모(영문57, 서정연구소 대표)본회 고문이 11월 2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이번 이북도민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의료기기의 날' 산업훈장



이창규(경영62, DK 메디칼시스템 회장)본회 고문이 11월20일 '제13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산업훈장을 받았다. 식품의약 품질처가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각계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의료기기 미래전략 포럼이 진행됐다.

제32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모교 전임 총장 보광스님(불교71)이 포교전법 현장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불자들을 치하하는 조계종 제32회 포교대상(종정성)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순천시민의 상'



강성재(농하73, 순천농협 조합장)동문이 올해 '순천시민의 상'을 수상했다. 전남 순천시가 제정한 '순천시민의 상'은 올해로 26년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상이다.

'소방의 날' 흥조근정훈장



조선호(경영90)동문이 11월6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소방시설기준을 기술코드 방식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면 개편한 것을 비롯해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창설, 한국119소년단 재출범, 승례문 방화사건 백서 발간 등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 실현에 남다른 역량을 발휘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



김종필(농생92, 모교 의생명공학과 교수)동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몸속 일반 세포를 신경세포로 바꾸는 세포 운명전환(Reprogramming) 기술을 개발, 치매 같은 난치병 치료와 재생의학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한국건축가협회상'



박희찬(건축97, 스튜디오 HEECH 건축 대표)동문의 건축 작품 '문경 산양양조장'이 2020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한국건축가협회가 건축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건축 전반의 제작의욕을 제고하고 문화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1979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모교 졸업후 런던대 바트렛건축학교를 나와 영국에서 8년간 활동하다가 3년전 귀국, 서울 강남에서 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의 날' 행안부장관 표창장



박동균(대학원92, 대구한의대 교수)동문이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 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전 시 · 개 관

'예서 탐색전'



선주선(불교73, 원광대 서예학과 명예교수)동문이 12월3일부터 9일까지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개인전 '마하선주선 예서(隸書) 탐색전'을 열었다.

2018년 원광대를 정년퇴임한 선동문은 자신만의 서예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말 각 서체의 탐색전을 여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행서시필전(行書試筆展)'과 '해서완미전(楷書玩未展)'에 이은 세 번째 행보다.

21번째 개인전 '죽제'



류완하(미술80, 모교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교수)동문이 21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12월 19일까지 대구 갤러리 위즈아츠에서 열린 이번 전시 주제는 '죽제'였다.

경주 벼루박물관 개관



손원조(행정대학원 87)동문이 최근 천년 신라고도 경주시내 경주읍성 인근에 '경주벼루박물관'을 개관했다. 지난 1971년부터 50년동안 벼루 1,500여점을 수집한 뒤 읍성 서편에 3층 건물을 신축해 벼루 전문박물관을 열었다. 전직 언론인으로 경주문화원장을 역임했다.

신간안내

경찰행정학부 동문 9명 교수 임용



▲ 윗줄 왼쪽부터 곽형곤, 김남미, 김다은, 김은기, 라광현 / 아랫줄 왼쪽부터 심민규, 이병도, 이승현, 최영관

경찰행정학부 동문 9명이 2020년 상반기에 여러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각 대학 교수로 임용된 동문들은 △곽형곤(10학번, 동국대 경주캠퍸스) △김남미(07학번, 한국영상대) △김다은(10학번, 상지대) △김은기(96학번, 배재대) △라광현(03학번, 동아대) △심민규(08학번, 나사렛대) △이병도(03학번, 서울디지털대) △이승현(10학번, 동국대 경주캠퍸스) △최영관(대학원07, 한양여대) 등이다.

9명의 동문이 한꺼번에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해 이창배 학부장은 “동문들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 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교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학과 교수님들의 노력, 좋은 환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동문회의 노력까지, 3가지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행정학부 동문 및 소속 교원 등의 기부를 통해 20년 이상 꾸준히 이어지는 ‘경찰행정학부 장학금 수여식’은 동문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잘 드러낸다. 경찰행정학부는 실제로 연간 수천만원 이상의 학부생 대상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자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행정학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찰학 전공 학과라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글로벌 학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QS랭킹을 기준으로 세계 100대 학과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모교의 경찰행정학부는 2020년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그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교정본부장 등 안전 관련 국가기관의 수장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고시, 감사원, 로스쿨, 금융기관, 언론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인재를 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학생들을 생각하는 훌륭한 학과 교수님들과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될 어린 동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든든한 선배 동문들과 그런 선배 동문들을 따라 훌륭한 인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후배 동문의 노력, 그 모두가 있었기에 이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경찰행정학부의 인재들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된다.

‘묘법연화경’ 역주본



본회 고문 홍파스님(불교63, 대한불교관음종 종무원장)이 2년 여 작업 끝에 관음종의 근본 경전이자 대승불교의 정수로 꼽히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법화경 · 사진)을 번역해 풀이한 책을 최근 출간했다. 묘법연화경은 12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신라시대 원효대사부터 조선시대 김시습에 이르기까지 선지식들이 내놓은 해설과 일본 중국의 책을 참고했다. 각 품(品)의 말미에 주석을 달았다.

스님은 “원효 스님은 법화(法華)의 문을 통과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며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마지막 시기 설법한 것으로 모든 경전의 사상과 흐름을 나침반처럼 안내한다”고 말했다. 일본 불교계와도 교류가 활발한 홍파 스님은 일본어 서문이 든 책 100권을 일본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서출판 법성)

‘북한 불교 백서’



법타스님(인도철학67, 조계종 원로의원)이 북한 불교의 근간인 ‘조선불교도연맹’을 대해부한 ‘북한불교 백서’를 내놨다. ‘북한불교 백서’는 북한 불교의 유일한 종단이자 종무 기관인 조선불교도연맹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법타스님은 남북 분단 이후 승려로는 처음으로 1989년 북한을 방문한 남북교류의 산증인이다. 이후 30여년간 100여차례 평양과 개성,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 있는 지역 사찰을 찾아 북한 불교계와 교류했다. 1992년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창립해 ‘법이 통일이다’를 주제로 대북지원 사업을 펼쳤고, 1997년 북한 황해남도에 ‘금강국수’ 공장을, 2006년에 평양에 ‘금강빵’ 공장을 개설해 북녘 동포를 도왔다.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탄 금강산 신계사 복원 등에 나섰고, 북한 사찰의 단청 지원이라는 불사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종교 및 불교에 대한 자료를 틈틈이 수집했고 이를 집대성한 결과물이 ‘북한 불교 백서’다.

이 책은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된다고 전제했을 때 북한 불교와 통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서 “마치 유언, 유서처럼 북한 불교를 통합 정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부터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은해사 회주로 있다. 2018년에는 동화사에서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받았다. (조계종 출판사)

90년생이 온다



임홍택(영문01)동문이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펴냈다. 1부 90년대생의 출현, 2부 90년대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 3부 90년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살아갈 세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1990년대생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창하게 말하기보다는 줄임말이 편하고, 병맛 같은 재미와 솔직한 것을 좋아한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스스럼없이 말해 가끔 버릇없다는 말을 듣곤 한다. 휴대전화 사용에 능하며 해외직구 따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90년생들의 대략적인 특징이다. (웨일북)

TWOHIM
BirdieBuddy

경사보정 모드!
핀시커 모드!
측정단위 변환!

www.twohim.com
NAVER | 투힘 버디버디 | Q

네이버 가격비교 1위!

가성비 골프거리측정기!
고객선물용 강력추천!

◆ 대량주문 031-309-0878

84학번 동막골
공식 거리측정기

▶ **파격가 109,900원**

**자체개발한
순수고농도이산화염소가스제조**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살균 및 악취제거
전문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데오테크 · (주)데오시스

친환경 악취제거 전문기업 | 국립 축산 과학원 공동개발

대표이사
서 승 훈
(정치외교학과 73入)

010 . 7739 . 7928 suhubin@naver.com

(주)데오테크경기156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38번길 14
Tel. 031) 985-0383 / Fax. 031) 494-0383**(주)데오시스**154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천로 37-9, 305동 309호
Tel. 031) 362-4884www.deotech.co.kr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장
치안감 / 경찰학 박사
조 용 식
Mobile. 010-9863-9100

前 전북지방경찰청장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한의마을한의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장
박 석 만
(한의학과 2012卒)

Mobile. 010 . 9329 . 7200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485 (화룡동)
대표전화 054 . 336 . 1075

전국 최대규모 자동차 전시장 전차종 전시

부장 이은성
(건축공학과 / 1981)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240 (덕풍동)
미사리 조정경기장 정문 건너편 위치
Tel: 031-794-6270 les7154@naver.com

동국대학교 선우배님 적극 상담 환영 Mobile: 010-5258-8867

(주) 전 테 크
Jeon Tech.Co.,Ltd.

"형기성 폐수처리(UASB/EGSB), 증발농축기(HEATPUMP/MVR), 방사성 폐기물/폐수처리"

대표이사
전 윤 중
(전기공학과 79)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 연구소 :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7 송산빌딩 5층
TEL. 031-257-6961(代) (내선 100) FAX. 031-257-6968
MOBILE. 010-5304-7909

공장 : (2782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사로 319
TEL. 043-533-6965 FAX. 043-533-6965

E - Mail. yjeon@jtech.co.kr (개인) / JTC0411@chol.com(회사)
Home Page. www.jtech.co.kr

Global Outsourcing Leading Company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MP(Manufacturing Production) / FM(Facility Management) / Security / Global Business /
LS(Logistics Service) / Silver Care Service / GreenS Service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기업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타워 동관 6F Tel. 1588-2239, 02-828-3939 Fax. 02-816-2669 http://www.samkoo.com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한마음영농조합법인



대표
이 수 호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하용강길 12-131

Mobile. 010. 5485. 1968 E-mail. scoolee60@hanmail.net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https://noeulsangjo.modoo.at>
사전상담 및 회원가입 시 기념품증정

장례를 돋는 사람들입니다.
진심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한걸음
따듯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빙니다.



노을상조 100% 후불제 상담문의 010.9665.8110

(주)성림조경

Tel 054. 773. 3002

명진산업(주)

Tel 054. 773. 8003

진명산업(주)

Tel 054. 773. 8366

대표이사 곽석윤 (최고영영자과정 2009)

Mobile 010. 3587. 0088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0년 9월 23일 ~ 12월 22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발전기금



혜암스님 (01불대원)
1,000만원



송석환 (64농경)
770만원



문선배 (75경영)
700만원



한우삼 (63농학)
150만원



홍파스님 (63불교)
150만원



김환배 (68위생공학)
150만원



홍종표 (94행대원)
147만원



조기종 (79전자계산)
100만원



김창규 (80법학)
100만원



김성재 (58정치)
경주중앙청과 회장



김진문 (64경영)
신성약품 대표이사



보광스님 (71불교)
청계산 정토사 회주



서영준 (64법학)
동양 회장



이상윤 (55정치)
삼영기업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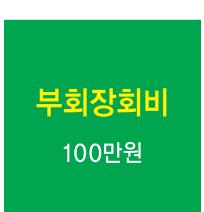
자광스님 (64인도철학)
반야선원 주지



현해스님 (64불교)
월정사 회주



홍파스님 (63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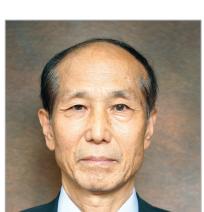
부회장회비
100만원



길종구 (82경영)
모교 경영학부 조교수



김애주 (76영어영문)
모교 대외협력처장



김영화 (63경찰행정)
前 종로경찰서장



김오현 (76체육교육)
BK그룹 회장



김인수 (76농학)
아이엠지코리아 대표이사



김정남 (72행정)
DB손해보험 부회장



김환배 (68연료공학)
풍년 회장



서승삼 (71경제)
GCMS코리아 대표이사



오정식 (72농학)
동원주류판매 대표이사



이계방 (72법학)
한국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



이광호 (74행정)
前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이대원 (72농업생물)
前 경주캠퍸스 총장



受貞하이텍(株)
SUMISAN

목재재단기 · 아크릴재단기

www.sjht.net

대표이사 전정수

(불교사회복지학과 · 2003)

Tel. 032-670-8147(代) / E-mail. tel0522@naver.com

세무법인 열림



대표이사 김병권

(세무회계학전공 · 200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6, 505호 (무교동, 체육회관)

Mobile. 010-6229-7454 / Tel. 02-777-5321

이영권 (11대학원)
대학알미늄 대표이사이옥태 (80불교)
골든웰산업 대표이사이윤훈 (73정외)
비앤이테크 대표이사혁창식 (75영어영문)
원스 대표이사황춘익 (02불교)
태평양관광호텔 회장

부회장

현각스님 (78인도철학) 50

지도위원 30만원

김완식 (64농학)
류정우 (58법학)
변태원 (59법학)
윤길한 (64정치외교)
이상현 (06대학원)
최규철 (60정치)

상임이사 20만원

김석희 (57법학)
대웅스님 (99불대원)
정우식 (88철학)
최신식 (86경영)

이사 10만원

강호균 (84행정)
고경찬 (80경제)
김수웅 (64경제)
김영생 (81영어영문)
박상국 (69불교)
박수열 (89행대원)
박재구 (76식품공학)
사기순 (84국어국문)
송철호 (74체육교육)
염동락 (75국어교육)
오근옥 (72회계)
윤천수 (72정치외교)
조시승 (69경제)
최해수 (05사과대)
편영배 (92산대원)

연회비 3만원

최동배 (04산대원)
석탑사 주지스님
강석현 (82경찰행정)
강태양 (81행정)
강희중 (68응용생물)
고경수 (03경대원)
고옥자 (79영어영문)
고태복 (69식품공학)
관음사 주지스님
구본홍 (68농학)
권오범 (64사학)
권중주 (75정치외교)
김광덕 (71영어영문)
김기태 (94경대원)
김내환 (77회계)
김동욱 (74농업생물)
김명룡 (77행정)
김보현 (69정치외교)
김부남 (63식품공학)
김부동 (88교대원)
김상숙 (69대학원)
김성수 (80무역)
김순제 (52경제)
김승관 (80경영)
김승기 (00대학원)
김영섭 (75농업경제)
김용삼 (59경제)
김용선 (89회계)
김원복 (59영어영문)
김은희 (90통계)
김인술 (88경대원)
김인호 (69경제)
김일근 (05경대원)
김종배 (82수학교육)
김종천 (79수학)
김종대 (75경대원)
김철환 (89행대원)
김형민 (70경찰행정)

김홍철 (60경제)

남원사 주지스님

내원사 주지스님

노만사 주지스님

노창희 (65법학)

담교스님 (95교대원)

류영연 (71국어교육)

만기사 주지스님

문수사 주지스님

문승덕 (73행대원)

박명호 (71화학공학)

박상규 (70연극영화)

박상기 (84무역)

박성일 (04언정대)

박종율 (10정치외교)

박준승 (80임학)

박지두 (67임학)

박진숙 (72가정교육)

박형서 (77회계)

박형주 (박창주) (01경제)

백담사 주지스님

변승현 (00경대원)

보현사 주지스님

봉수사 주지스님

석굴암 주지스님

성불사 주지스님

손봉표 (86산업공학)

손원조 (85행대원)

송수연 (14불대원)

송승훈 (01전기공학)

송운하 (07행대원)

수덕사 주지스님

수덕사 주지스님

신흥사 주지스님

심기열 (81회계)

양정희 (86고미술)

어관무 (69경제)

엄금수 (72행대원)

연등사 주지스님

영화사 주지스님

우희명 (70건축공학)

원경스님 (95불대원)

유관주 (86경영)

유하사 주지스님

유호열 (53농학)

윤일현 (84경영)

윤혜원 (15교대원)

이경배 (79전자계산)

이규상 (55경제)

이규현 (61경제)

이근우 (61불교)

이기호 (86영어영문)

이덕수 (75법학)

이명규 (70수학교육)

이병동 (52임학)

이상길 (89영어영문)

이상범 (95불교)

이선행 (75토목공학)

이승준 (84일어일문)

이승희 (92행정)

이양례 (97경대원)

이인용 (88무역)

이재권 (77경제)

이재혁 (99화학공학)

이정수 (64영어영문)

이종규 (81경영)

이창림 (78영어영문)

이칠규 (85무역)

이태경 (이태분) (95대학원)

이학성 (07미술)

이향수 (83회계)

이호정 (64경영)

이 훈 (82수학)

임병수 (95교대원)

장병수 (10대학원)

장보선 (87교대원)

장세용 (89회계)

장수사 주지스님

전윤중 (79전기공학)

정금연 (72행대원)

정기준 (78회계)

장학위원회 신규가입

(2020년 9월 ~ 12월)

김동환 (03행대원)	월 10만원	곽노성 (69전자공학)	월 1만원
유대영 (69통계)	월 10만원	김영기 (84경영)	월 1만원
김동진 (79행대원)	월 5만원	김완식 (64농학)	월 1만원
김수창 (65불교)	월 5만원	김정현 (93불교)	월 1만원
김종형 (81경영)	월 5만원	김희수 (00사과대)	월 1만원
박용식 (74행대원)	월 5만원	나승규 (08가정)	월 1만원
백재우 (92법학)	월 5만원	라동영 (59불교)	월 1만원
윤종원 (81한의)	월 5만원	박병훈 (85일어일문)	월 1만원
조덕형 (84조경)	월 5만원	박태환 (95사회체육)	월 1만원
황경환 (87교대원)	월 5만원	백문규 (98국제통상)	월 1만원
길종구 (82경영)	월 3만원	송석방 (69도시공학)	월 1만원
김경민 (86경영)	월 3만원	이종호 (84무역)	월 1만원
김종화 (67임학)	월 3만원	전진표 (60임학)	월 1만원
김진영 (79전자공학)	월 3만원	최환호 (89행정)	월 1만원

정병렬 (84법학)

정상훈 (96법학)

정영자 (03사과대)

정윤규 (09정보통계)

정재균 (87법학)

정정섭 (85전자계산)

정지환 (10불대원)

정토사 주지스님

정현종 (67농림경제)

정흥락 (07대학원)

조성순 (81경제)

조종미 (83지리교육)

조한구 (67상학)

조현진 (03행정)

자산스님 (88교대원)

지용진 (82경찰행정)

지원복 (72무역)

지원스님 (최규태) (07불대원)

지용중 (76건축공학)

최광수 (82화학공학)

최병만 (83행대원)

최승원 (09대학원)

최종열 (82토목공학)

최종완 (61법학)

최지성 (88경영)

최철영 (64행정)

탁일찬 (84영어영문)

토진스님 (87선학)

하민호 (78전자공학)

하영태 (55법학)

한운섭 (68경영)

동국장학회

이진혁 (75화학)	월 5만원
누계 : 430만	
이성훈 (97정보)	월 2만원
누계 : 60만	

발전기금

동상회 (회장 홍영준)	50
박성만 (75전자공학)	5
동명사	월 2만원
누계 : 162만원	



대표/건축사 조재성

Mobile. 010-4747-3980</



AMBASSADOR

Yours Always

“당신의 모든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65년 역사의 앰배서더 호텔은 Hospitality Leader로서
대한민국 호텔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연회, 미팅, 숙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GRAND
AMBASSADOR
SEOUL

PULLMAN
HOTELS AND RESORTS

경월재
GYEONGWONJAE AMBASSADOR
ASSOCIATED WITH ACCORHOTELS

NOVOTEL
HOTELS & RESORTS

앰배서더
Seoul Gangnam

NOVOTEL
HOTELS & RESORTS

앰배서더
Seoul Doksan

Mercure
HOTELS

앰배서더
Seoul Hongdae

ibis
STYLES
HOTELS

앰배서더
Seoul Gangnam

ibis
STYLES
HOTELS

앰배서더
Seoul Myeongdong

ibis
HOTELS

앰배서더
Seoul Myeongdong

ibis
HOTELS

앰배서더
Seoul Insadong

www.ambatel.com